

碩士學位論文

국내 ‘귀신물 다큐’ 폐지원인에 대한 의미구조  
; ‘MBC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일스터리’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高 榮 奎

2010年 1月

국내 '귀신물 다큐' 폐지원인에 대한 의미구조  
; 'MBC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일미스테리'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최낙진

高榮奎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月

高榮奎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1月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reasons behind the  
abolition of 'Ghost Docu' Programs in Korea

: Mainly with ' Into the Story by MBC ',  
'Saturday Mystery Theatre by 'SBS'

Young-Gyu Ko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10. 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표차례 .....	i
그림차례 .....	ii
국문초록 .....	iii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II. 관련논의 및 선행연구 .....	3
1. 귀신물 다큐의 정의 .....	3
2. 기독교와 귀신 .....	6
1).기독교 성서의 형성과정 .....	7
2).구약과 신약성서 .....	8
3. 서양의 악마와 동양의 귀신 .....	11
2).서양의 악마 .....	11
2).동양의 귀신 .....	13
4. TV 프로그램의 폐지와 방송통제요인 .....	16
1).방송사 외부의 통제 요인 .....	16
2).방송사 내부의 통제 요인 .....	18
3).TV 프로그램의 폐지와 시청률 .....	19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2
1. 연구문제 .....	22
2. 연구방법 .....	24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	25
.그레마스의 표층단계와 심층단계 .....	28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	31
IV. 연구결과 .....	36
1.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 .....	36
2.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	52
V. 결론 .....	57
참고문헌 .....	60
ABSTRACT .....	62
부록 .....	65

## 표 차 례

<표 1>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방송제재 총 횟수 및 위반사유 .....	43
<표 2> ‘토요미스터리 극장’ 방송제재 총 횟수 및 위반사유 .....	43



## 그림 차례

<그림 1> 기호사각형의 최초과정 .....	26
<그림 2> 기호사각형의 두 번째 과정 .....	27
<그림 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	28
<그림 4> 기호와 의미소의 복합구조 .....	29
<그림 5> 경쟁상대자 의미구조 .....	30
<그림 6> 행위소 모델의 분석틀 .....	32
<그림 7> 신데렐라 이야기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	33
<그림 8> 부산기관장모임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	34
<그림 9> 외부적통제요인인 시청자단체의 의미구조 .....	40
<그림 10> 외부적통제요인인 방송위의 의미구조 .....	47
<그림 11> 외부적통제요인인 정부의 의미구조 .....	50
<그림 12> 기윤실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	55

**국내 ‘귀신물 다큐’ 의 폐지요인들에 관한 의미구조**  
: ‘MBC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일미스테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과거 시청률이 높았던 방송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외부통제 요인들이 어떤 작용과 역할을 했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1997년을 전후로 ‘귀신물 다큐’라는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와 SBS ‘토요일 미스테리 극장’의 경우는 시청률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귀신물 다큐’는 국내의 다양한 외부적 통제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1999년 2월 초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귀신물 다큐’라는 장르의 지상파 방송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귀신물’ 프로그램의 폐지원인은 단순한 TV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문화 속 저변에 깔린 또 다른 사회적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폐지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통제요인과 내부적 통제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각 의미소들을 추출하여 ‘귀신물 다큐’의 프로그램 폐지과정에서 각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의미구조를 살피고, 최종적으로 각 통제요인들과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기독교와 귀신>에서는 기독교의 역사와 성서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악마의 기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가 왜 ‘귀신물 다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이다.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는 데 가장 주도적이었던 시민단체가 바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단체이다. 기독교의 ‘귀신물 다큐’를 폐지해야한다는 논리가 겉으로는 비과학적이며, 국민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재 기독교의 역사라는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악마관이라는 뿌리

깊은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서양역사에서 이교도를 정복할 때 모든 잔인한 행위에 합리화를 주는 구절들은 바로 악마이고 이 모든 ‘악마론’의 출발은 바로 구약이다.

두 번째, <서양의 악마와 동양의 귀신>에서는 이러한 성서 속에 나타나는 악마론으로 인해 동양의 귀신 또한 악마와 동일시되고 있는데, 서양의 악마관과 동양의 귀신관이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TV 프로그램의 폐지와 방송통제요인>에서는 ‘귀신물 다크’가 폐지되기까지 다양한 내 외부적 통제에 영향을 받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동안 알려진 외부적 통제요인과 내부통제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학>을 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 해내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이 바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과 행위소 모델인데, 이러한 분석틀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성하였다.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통제요인들과 ‘귀신물 다크’의 의미구조 관계를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해 나타냈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의미구조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행위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외부적 통제요인과 ‘귀신물 다크’의 관계를 보면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방송사라는 내부적 통제요인이 정치적 통제요인을 만나면서 우호에서 비우호로 급전환 한다는 사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요인으로 인해 ‘귀신물 다크’는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외부적 통제요인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연계작용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위소 모델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통제요인들과 ‘귀신물 다크’의 관계를 바라보면 여기서 가장 주도적으로 폐지에 영향을 준 주체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종교단체였으며, 이러한 모든 폐지원인의 깊은 심연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수입한 기독교문화가 국내에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내방송프로그램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경우 일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악마, 마귀, 사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귀신이 등장하는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 초기부터 시청률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프로그램의 시초라 할 수 있다.<sup>1)</sup>

한때 ‘귀신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전설의 고향’<sup>2)</sup> 이후,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을 전후로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 미스터리 극장’, KBS ‘미스터리 추적’ 등이 바로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귀신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와 SBS ‘토요미스터리 극장’의 경우는 그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귀신물 다큐’는 일부 종교단체와 시청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엔 ‘비과학적인 태도를 조장하고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안을 줬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중징계까지 받게 된다. 그 후 일상적인 생활 속이야기로 점점 대체되고 공포물의 성격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모든 ‘귀신물 다큐’ 프로그램은 1999년을 전후하여 지상파 방송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당시 방송가에서는 IMF로 인한 대대적인 비용감축과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방송사끼리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대한 비판마저 감수하던 때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돈을 벌어드 주는 효자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1) ‘전설따라 삼천리’(1966년~78년) 귀신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었다. 문화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라디오드라마.  
2) ‘전설의 고향’(1977~2009) 1977년 <마니산 효녀> 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1989년 578회까지 장장 12년간 꾸준한 인기를 받았던 장수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것은 방송사의 경영입장에 크게 위배된다.

귀신에 대한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나 종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귀신물 다큐’ 프로그램의 폐지원인은 단순한 TV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문화 속 저변에 깔린 또 다른 사회적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폐지에는 다양한 통제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통제요인’인 시청자단체 또는 종교단체들의 윤리기준은 그 나라 문화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폐지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통제요인’과 ‘내부적 통제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각 의미소들을 추출할 것이다.

각각의 의미소들은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귀신물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각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의미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의미구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귀신물 다큐’의 폐지에 주도적 역할을 한 ‘행위소’를 선정하고, 그 ‘행위소’를 중심으로 각 통제요인들과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관련논의 및 선행연구

### 1. 귀신물 다큐의 정의

여름이 되면 ‘납량’(納涼)이란 표현을 자주 접한다. ‘납량’을 대부분의 한국 국어사전에서는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바람을 쐬’ 또는 ‘더위를 이기거나 잊게 하는 일’이라 풀이하고 있다.

납량의 개념 중에서 ‘서늘한’이라는 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움이나 전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여름이 되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위를 잊게 하기 위해서 기괴한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기획할 때 납량특집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한국 ‘귀신물’ 방송 프로그램의 시조라 불리는 전설의 고향에서는 주로 흰 소복귀신이 등장하곤 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근대 ‘귀신담’이나 민간신앙에 나타났던 귀신들 중 특히 ‘여자 귀신’을 선택하여 한 맺힌 여인의 복수를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양의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가 방송에 등장하여 동양의 무속신앙과 서구의 종교 등을 혼합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sup>3)</sup>

최근 MBC ‘혼’과 KBS 2TV ‘2009 전설의 고향’이 납량특집물로 방영되었는데, 이러한 납량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恨)’을 다룬 고전적인 내용이 아닌 서구의 종교관과 한국의 귀신을 혼합했다는 점이다

MBC ‘혼’은 범죄 프로파일러가 악을 응징하려다 스스로 악마로 변해간다는 서구의 종교관이 깊게 깔려있다. 또한 19세 이상 시청등급을 받을 정도로 잔혹한 묘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혼’은 시청률 7.8%(TNS미디어코리아)로 조

3) MBC ‘혼’은 서구의 악마라는 소재를 '2009 전설의 고향'은 서구의 뱀파이어와 한국의 귀신을 혼합하였다.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 <MBC M> 천사의 키스, RNA, 구미호 외전, 고스트 등의 작품들로 90년대 미스터리 드라마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용히 막을 내려야 했다.<sup>4)</sup>

특히 KBS 2TV '2009 전설의 고향'의 경우는 서양의 대표적 악마인 뱀파이어 ('혈귀')와 스토커('계집중')등의 새로운 소재를 선보였으나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무속문화에다 서구의 종교관 등을 뒤섞은 호러물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국내 TV 납량물에도 이미 서구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상이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09 전설의 고향'은 장수 납량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초라한 막을 내렸다.

과거 민담이나 우리 주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통 '귀신물'은 '전설의 고향'과 함께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와 같은 국내 '귀신물'에 대한 상황은 최근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5)</sup>

“시청률조사회사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8일 방송된 '2009 전설의 고향'-'가면귀' 편은 결국 장수 납량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4.5%라는 초라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중략) KBS의 간판 납량물인 '전설의 고향'의 지난 시청률과 비교하면 1996년(27.8%), 98년(23.2%), 99년(13.7%), 2008년(16.4%) 방송된 예전 시리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때 '납량물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에서 전성시대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귀신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이하 '귀신물 다큐')였는데,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와 SBS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996년 중반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MBC '경찰청 사람들', KBS2 '공개수사 25시'와 같이 실제 상황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한 장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수입하여 방영되었던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긴급구조 911' 등이 있다.

'귀신물 다큐' 역시 이러한 재연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기존의 '전설의 고향'과

4) 식상한 연출... 부실한 대본... 고개숙인 납량특집 드라마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mailto:delinews@segye.com)

5) '전설의 고향, 초라한 폐지, 장수 납량물 자존심 추락'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mailto:mycuzmy@joynews24.com)

같은 드라마가 아니라 시청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의 사실성을 강조 하면서 공포물을 즐기는 시청자에게 더욱 큰 재미를 제공했다.

세계최초의 다큐멘터리는 1922년 로버트 플래허티( Robert Flaherty)가 만든 ‘북극의 나누크’이다. 그는 에스키모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척박한 북극의 환경과 싸우는 특이한 모습을 담기위해 새로운 제작방법과 형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제작형식이 다큐멘터리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다큐멘터리 학자들은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과 함께 기술적 미학적 요소들이 혼재 해 있는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계 또한 불투명 해져가고 있다고 한다.<sup>6)</sup>

‘귀신물 다큐’라는 장르 또한 기존의 정통다큐멘터리와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귀신물 다큐’라는 용어 자체는 기존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단지 본 연구에서 귀신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딱히 표현할 만한 용어가 없기에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귀신물 다큐’의 시초인 ‘MBC 이야기 속으로’의 최초 기획의도는 초자연적인 현상, 무서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름 납량기획물이다.

‘MBC 이야기 속으로’는 당시 비공식적인 괴담 드라마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SBS 토요 미스터리극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원래의 제목은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였지만 당시 비과학적인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한다는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뒤 ‘다큐드라마 이야기 속으로’라고 제목을 바꾸기도 했다. ‘MBC 이야기 속으로’는 1996년 11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1999년 2월 초에 110회를 끝으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SBS 토요 미스터리극장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1997년 6월 14일 토요일 첫 방송을 했으며 당초 “토요 미스터리” 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탔으나, ‘MBC 이야기 속으로’와 같은 이유로 “토요 미스터리극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1998년 11월 14일 최종회인 70회로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

6) ‘방송제작실무-다큐멘터리’ 2005 김동만 외 공저 제주한라대

## 2. 기독교와 귀신

기독교에는 많은 분파가 있지만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는 로마의 초기기독교에서 출발하여 서구유럽의 문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개신교는 마틴 루터<sup>7)</sup>의 종교개혁과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오늘날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sup>8)</sup>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종교의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선 밝힌다. 국내 ‘귀신물 다큐의 폐지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악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귀신’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귀신물’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귀신’을 ‘악마’와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기독교가 기존의 한국문화와 마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로 제사문화와 ‘단군상’ 훼손 등이 있는데 그 이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의 교리는 ‘신과 천사’를 제외한 모든 초자연적인 존재와 우상은 악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를 적용하자면 자손을 보살피는 ‘조상귀신’도 ‘악마’이며 ‘단군상’ 또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교리원칙에 의해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종교 중에서 기독교와 같이 타문화와 종교 또는 ‘귀신’에 대해 이처럼 호

7)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1.10~1546.2.18]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 면죄부 판매에 '95개 조 논제'를 발표하여 교황에 맞섰으며 이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통일에 공헌하였으며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써 '루터파 교회'를 성립했다. -두산백과

8) 청교도 [淸教徒, Puritan] '퓨리탄'이라고도 한다. 1559년의 엘리자베스 1세가 내린 통일령에 순종하지 않고 국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로마가톨릭적인 제도·의식(儀式)의 일체를 배척하며, 갈뱅주의에 투철한 개혁을 주장했고 엄격한 도덕, 주일(主日:일요일)의 신성화 엄수, 향락의 제한을 주장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비국교도로서 심한 박해를 받고 네덜란드와 기타 지역으로 피해 갔다. 그 중에서도 신대륙의 플리머스에 식민지를 개척한 메이플라워호(號)의 '필그림 파더스'(1620년 북아메리카 식민지시대 뉴잉글랜드 최초의 영구 식민지가 된 매사추세츠주(州) 플리머스에 정착한 사람들.)는 유명하다. 청교도는 점차로 절대왕정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결부하여 의회에서 유력해지고,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교도 내부에서도 크게 장로파(長老派)와 독립파(獨立派)로 분열했다. 청교도 문학으로 는 밀턴의 《실낙원(失樂園)》이 대표적이다. -두산백과

전적인 종교는 일찍이 없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기독교 성서의 형성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기독교성서의 형성과정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력인 그리스도의 기원전이라는 BC (Before Christ)와 주님의 해라는 뜻의 AD(Anno Domini) 만 보더라도 기독교가 서양의 문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가늠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의 발전은 예수의 사후에 사도 바울이 희랍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기독교는 현재의 성경과 같은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약 AD 40년경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쓴 편지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sup>9)</sup>

‘요한복음강해’와 ‘기독교성서의 이해’ 저자인 도올 김용옥<sup>10)</sup>은 그의 저서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시 유대인과 희랍지역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약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재미난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고, 메시아의 대망, 예언의 성취 등이 들어 있었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설교와 전례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신약에 해당하는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한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자, 영웅이라는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였다. 당시 마가라는 사람이 그러한 유대민족의 상황에서 예수의 일대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마가복음서라고 한다.<sup>11)</sup>

이후 AD 75년과 95년 사이에 마태와 누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서<sup>12)</sup>를 바탕

9) ‘지옥의 역사1’, 엘리스 K. 터너 지음/이찬수 옮김 1998 동연출판사

10) 김용옥(金容沃, 1948년 6월 14일~ )은 호 도올(藹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의 사상가이다. 일반인에게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한 TV 노자와 21세기 강좌에서의 상식을 깨는 인상적인 강의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철학은 동양과 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기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동양사상이 그 뿌리인 기철학을 통해 서양철학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사상적,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위키백과

11) ‘기독교성서의 이해’(2007) 도올 김용옥 통나무 144-145p

12) ‘마르코의 복음서’ (The Gospel According to Mark)마르코가 67~70년 무렵 개종한 이교도와 로마 교회 신자를 위하여 쓴 복음서이다. 《마가복음》이라고도 한다. 《마태오의 복음서》 《루가의 복음서》와 함께 공관복음서(共觀福音書)로 불린다. 16장으로 되어 있어 공관복음서 중 가장 짧으나, 복음서 가운데

으로 개정 증보판을 낸 것이 바로 현재의 공관복음서<sup>13)</sup>라 불리는 마태복음, 누가 복음이며,<sup>14)</sup> 요한복음은 AD 100년 이후일 거라고 도울 김용옥과 일레인 페이지스 (Elaine Pagels)<sup>15)</sup>등과 같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 2) 구약과 신약성서

성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인정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금서로 정해진 외경<sup>16)</sup>으로 나눌 수 있다. 구약은 예수 이전의 유대인의 성경인 히브리 성경을 모태로 한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내용 그리고 영화로도 잘 알려진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가 들어 있으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현재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제프리 러셀<sup>17)</sup>은 그의 저서 ‘악마의 문화사’에서 호전적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경구절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 출애굽기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사랑하고 질투하고 징벌하는 불의 신이다. 모세에게 십계명

맨 먼저 쓰여져 다른 복음서들이 이를 참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산백과

- 13) ‘공관복음서’ [共觀福音書, Synoptic Gospels] 이 세 복음서는 그 기술 내용에서 일치하는 관점이 많아, 같은 통관(通觀)을 보여준다는 데서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 이 명칭은 16세기에 시겔리우스가 저서 《Synopsis historiae Jesus Christ》(1586)에서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고, 그 후 그리스바하가 쓴 《Synopsis Evangelium》(1776)을 통해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술어가 되었다. -두산백과
- 14) ‘사탄의 탄생’ 일레인 페이지스(1995) (Elaine Pagels) 권영주 옮김/ 루비박스 pp?
- 15) 일레인 페이지스 (Elaine Pagels) 현재 프린스턴 대학 해링튼 스피어 페인 칼리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70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콜롬비아 대학 버나드 칼리지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이곳에서 종교학과 학과장, 콜롬비아 대 총장을 역임했다. 페이지스 교수는 나그함마디에서 발견된 각종 문헌 편집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요한복음의 영지주의적 해석>, <영지주의자 바울: 바울 서한의 영지주의적 해석>, <아담, 이브, 그리고 뱀> 등을 저술했다.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의 THE GNOSTIC GOSPELS>로 1980년 전미비평가협회상과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1981년 맥아더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 16) 나그함마디는 1945년 12월에 단지에 밀봉되어 있던 가죽 장정 파피루스 코텍스 13권이 지역 농민에 의해 발견된 장소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코텍스는 대부분 영지주의 관련 문헌들을 담고 있으며, 영지주의적 금서를 소유하는 것이 이단으로 공격받던 상황에서 파코미우스 수도원 가까운 수도사에 의해 숨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문서의 내용은 콥트어로 쓰여 있으나, 모두 본래 그리스어로 작성된 문헌을 번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유명한 문헌으로는 도마 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은 나지함마디 코텍스에 담긴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필사본이다. -위키백과
- 17) 제프리 버턴 러셀(Jeffrey Burton Russell)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러셀은 하버드 대학, 뉴 멕시코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리버사이드), 노트르담 대학에서 역사와 종교학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 대학(샌타 바버라) 역사학과 명예 교수이다. 17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로 신학사와 관련된 연구가 많고 그 가운데 약의 역사 4부작은 1977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988년에 완간된 대작이다.

을 줄때에 야훼(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중략)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출애굽기 20:3-4)

야훼 스스로 다른 신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 신을 섬기면 질투한다는 것이다. 구약의 하느님인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네 야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야훼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야훼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야훼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신명기20:13-17)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sup>18)</sup>을 신앙하고 있었다. ‘바알’은 ‘여호와’에게 패한 이후 농경신이라기 보다는 현재 ‘사탄’과 더불어 악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게임, 영화 등에 단골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다.<sup>19)</sup> ‘구약성서’에서 비쳐지는 ‘여호와’는 유대인들에게는 관대하지만 타민족에게는 정말 잔혹한 면모를 보여준다.

초기 기독교는 성서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의 ‘구약’을 받아들이면서 호전적인 유일신 신앙까지 수입하게 된다. 현재의 기독교 성서가 완성되기까지는

18) 바알 [Baal] 셈어(語)로 ‘주(主)’ 또는 ‘소유자’의 뜻이다. 페니키아 신화에서는 각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는데, 페니키아인이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지방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한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또 페니키아의 라스 샴라 문서(文書)에서는 대기와 구름과 폭풍의 신인 바다드로 그려져 있다. 태양의 주신(主神)인 엘 다음으로 위대한 신이며, 엘보다도 새롭다. 천둥으로 무장하여, 번개를 나타내는 창을 땅에 집고 암소에 올라탄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집트 고(古)왕국에서도 외래(外來)의 신으로서 숭배되었고, 구약성서에서는 토지 소유자로 간주되는 신들의 총칭으로서 바알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곡물·과실·가축 등의 결실 및 성장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이 바알 신앙이 차츰 야훼 신앙을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BC 8세기의 예언자들로부터 우상숭배라는 낙인이 찍혀 배격되었다. -두산백과

19) 10년간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국 SF드라마 ‘스타게이트 SG-1’에서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에이리언으로 등장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한 롤플레이 액션게임 ‘디아블로’ 등 많은 게임에 바알은 대표적인 악마로 등장한다.

이단과 정통이라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기독교성서의 이해’ 저자인 도올 김용옥에 의하면 2세기 초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는 운동이 있었다고 한다.

질투와 저주와 보복, 율법의 신인 ‘구약의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 용서, 믿음의 신인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 하자는 마르시온교회<sup>20)</sup>의 입장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한 로마교회의 오랜 싸움이 있었다.

결국 로마교회가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정치권력에 야합하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로써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전 유럽을 받아들여 두게 되는 초슈퍼종교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후 로마교회 내에서 삼위일체론과 예수의 처녀 잉태설을 둘러싼 기나긴 내분이 끝나고 AD 367년 마지막 승리를 거둔 아타나시우스 대주교는 현재의 성경인 27서 정경체제를 부활절에 발표한다. 이후에 정경이외의 문헌은 읽어서도 안 되고 소장되어서도 안 된다는 명령과 함께 나머지는 모두 외경으로 분류되어 소각된다.

또한 방대한 인류의 유산인 화려한 예술품,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하루아침에 우상파괴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무너져 버리게 된다. 아타나시우스의 27서 정경의 성립은 향후 인류사를 지배하는 막강한 도덕적 잣대가 된다.<sup>21)</sup>

20) 영지주의자로 알려진 마르시온으로부터 세워진 교회이며 2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까지 로마카톨릭교회와 병립하며 300년간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다. - 두산 백과

21) 《기독교성서의 이해》 도올 김용옥 (2007), 통나무 139-177p

### 3. 서양의 악마와 동양의 귀신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귀신은 다르게 표현되어 왔는데, 동서양의 귀신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귀신(鬼神)과 악마(Devil, Demon)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의 고대시대에는 Demon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정령이라 여겨졌으나 기독교가 서구세계를 휩쓴 이래로 ‘영적에너지’를 의미하던 그리스어 daemon은 귀신, 악마를 뜻하는 영어의 demon이 된다.<sup>22)</sup>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은 Demon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초기교부들은 이교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는데 고심했는데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가 정령과 인간승배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23)</sup>

칼 세이건<sup>24)</sup>은 그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특히 정령을 싫어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제 8권에서 고대의 전통을 동화시켜, 여러 신들을 유일신으로 바꾸고 정령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령은 예외 없이 해롭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 악과 물질적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sup>25)</sup>고 설명했다.

#### 1) 서양의 악마

서양의 악마에 대한 개념은 유대교-기독교적 전통과의 역사와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악마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들 전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학자 제프리 러셀<sup>26)</sup>은 그의 저서<악마의 문화사>에서 악의 문제는 항상 유대와 기독교 신학의 최대 난점이었다고 한다.

22) 《사탄의 탄생》 일레인 페이지스(1995) (Elaine Pagels) 권영주 옮김/ 루비박스 151p

23)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상헌 옮김, 김영사, 2001) 136p

24) 칼 에드워드 세이건(Carl Edward Sagan, 1934년 11월 9일 ~ 1996년 12월 20일)은 이 책에서 잘못된 과학교육, 과학자들의 무책임성, 대중매체의 선정적 보도관행이 초래한 비과학적 형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25)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상헌 옮김, 김영사, 2001) 137p

26) 주 12 참조

이들 종교는 일신교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신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두고 머리를 싸매야 했고, 악이 존재한다는 것과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끼워 맞출 수 있는가? 완전하게 선하며 전능한 신이 암이나 기근, 고문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악마의 발명이라고 했다.<sup>27)</sup>

그들이 고심 끝에 내린 한 가지 답은 적어도 악의 일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령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악령을 사탄, 즉 ‘방해자’라 불렀다. 사탄은 디아블로스 (diabolos)로 번역되며, 이 말에서 라틴어인 diabolus와 영어 devil이 파생했다고 한다.<sup>28)</sup>

악마(Devil)라는 말은 헤브루에서 ‘가로 막는자’라는 뜻으로 쓰인 사탄(satan)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것이고, 사탄과 어원이나 개념 면에서 동일하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악마는 오늘날에 주로 서양의 데블(devil)이란 뜻으로 쓰이며, 소문자와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다르다.

소문자인 데블은 ‘데몬(demon)’이라고도 불리는데,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여러 가지 종교적 숭배나 속신(俗信)·민화(民話)에 나타나며, 몽마(夢魔)나 흡혈귀(吸血鬼)·마녀 등도 이 종류에 속한다. 이들은 중세 이래 귀신연구나 악마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데몬은 그리스어의 다이몬(신·신성)에서 온 것으로 어원인 그리스어에는 악마(나쁜 정령) 외에 선마(착한 정령)도 포함되었으나 기독교 시대 이후에는 악마라는 뜻으로만 쓰고 있다. 그리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의 사탄(Satan)과 같은데, 헤브라이어의 ‘적(敵)’을 뜻한다고 한다.<sup>29)</sup>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정령으로부터 악마로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정령(Demon)’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악의 근원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점점 유일신으로 바뀌어가게 되었고, 완벽한 흑백논리적인 신관이 탄생됐다. 현

27) '악마의 문화사' 제프리 러셀 47-52p

28) '악의 역사 2권 사탄' 제프리 러셀 ( ? )p

29) 사탄(Satan) -위키 백과사전

제에 와서 Demon은 악마, 마귀, 귀신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기독교적 신관에 따라 수많은 자연적 영혼들이 악마로 인식되고 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사이비종교나 이교도, 악마숭배자로 분류 되어 버렸다.”<sup>30)</sup>

현재는 정령을 Spirit이라고 쓰지만 초기에는 Demon이라고 사용 되었을 것이며 적어도 두 가지 모두 같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령을 순수한 악의 근원이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서양의 단순한 흑백논리의 사고로 정령을 순수한 악으로만 규정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 언어의 사용에 따라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이다. 정말 악한 정령도 있겠지만 선한 정령 또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정령 모두를 매도해서 악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영적 존재들이 악의 근원으로 규정됨으로써 모든 이교도들과 마녀들은 자연스럽게 악의 숭배자로 여겨졌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악마라는 개념을 이용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악마관’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 2) 동양의 귀신

근대화 이후 서구과학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문화 중 하나가 귀신이다. 귀신은 또한 악마, 사탄, 마귀 등으로 불리며 미신이라는 오명과 함께 타파해야 할 대상 중 첫 번째가 되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의 성장과 귀신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순복음교회의 이자실 목사<sup>31)</sup>는 초기 개척교 시절 선교활동을 다룬 그의 저서 ‘나는 할레루야 아줌마였다’에서 귀신퇴치를 통한 교회의 성장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유명한 ‘성락침례교회’의 김기동, 서울대 교수요 부활교회 목사인 한만영 천국의 저자 필시 콜레와 연합집회를 인도하여 화제가 되었던 한국 예루살렘 교회의 이초석 목사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sup>32)</sup>

30)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상현 옮김, 김영사,2001) 135-137p

31) 이자실 목사 순복음교회 창립자

동양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귀신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고대 중국의 음양론에 의하면 영혼을 ‘혼(魂)’과 ‘백(魄)’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혼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와 더불어 사람의 정신작용을 하는 양기(陽氣)의 영, 백은 육체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음기(陰氣)의 영을 의미한다. 이 둘은 육체라는 그릇 속에 조화롭게 들어 있어야만 생명체를 가진 인간다운 구실을 하지만 죽으면 분리된다고 믿어왔다<sup>32)</sup>

‘예기禮記’에 따르면 만물은 천명에 의해서 생겨나고 성장하여 소멸을 하는데, 만물의 죽음을 ‘절’(折), 곧 단절(斷折)이라고 한 것은 만물은 죽어서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을 ‘귀’(鬼)라 한 것은 곧 귀(歸)의 뜻으로 죽어서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귀(鬼)라 하였다고 한다.<sup>34)</sup>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돌아갔다’(歸)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sup>35)</sup> 이처럼 고대 동양인들은 죽음으로 육체는 소실되나 영혼은 소실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예기(禮記)’의 ‘혼기(魂氣)’는 하늘에 올라가고 ‘형백(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간이 죽으면 혼과 백은 그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때, 하늘로 올라간 것을 ‘신(神)’이라 하고 땅으로 돌아간 것을 ‘귀’(鬼)라고 했다.<sup>36)</sup>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귀신을 주로 ‘음양설(陰陽說)’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혼백이 산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면 귀신은 죽은 사람을 지칭 하는 용어이다. 두산백과에서는 귀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금오신화(金鰲新話)》에서 김시습(金時習)은 귀자(鬼者) 음지령(陰之靈), 신자(神者) 양지령(陽之靈)이라 했다. 즉 천지 우주만상을 음양(陰陽)이라는 두 기운의 활동으로 보고 이것을 생과 사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때 살아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人)·물(物)이고 생물이 죽은 상태인 경우를 귀신이라 했다.” (두산백과 본문 중 ‘귀신’)

32) ‘무속신앙의 영향과 한국교회의 마귀론’ 목창균 교수 서울신학대학

33) ‘조선의 귀신’ 노성환 옮김 1995 109-111p

34) 『禮記』 「祭法」 大凡生於天地間者皆曰命，其萬物死皆曰折，人死曰鬼. 박용조 역

35) ‘중국사상에서의 귀신에 대한 이해’ 박용조 부산카톨릭대 교수 147p

36) 『鬼神說話研究』 안병국, 31p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한다거나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조상신을 모시는 고대의 풍습을 유교가 흡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중국의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또한 "집안이나 나라의 결속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조상신의 개념으로 귀신을 설명했다. 즉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귀신을 잘 모시라는 식의 가복신앙과 유교적 의식이 합쳐지게 된 것이다."<sup>38)</sup>

한국 납량물 TV 프로그램의 시조라 불리는 '전설의 고향'에서는 주로 흰 소복 귀신이 등장하곤 했다. 이 시기에는 전근대 귀신담이나 민간신앙에 나타나던 귀신들 중 특히 '여자 귀신'을 선택하여 한 맺힌 여인의 복수를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한(恨) 맺힌 여인'을 강조한 것은 봉건적인 성규범이나 가족관계인 처첩갈등,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귀'의 사연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sup>39)</sup>

국내방송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여귀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희생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원귀(冤鬼)'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이 '여귀(女鬼)'들은 '서양의 악마'처럼 '절대 악'인 존재가 아니며, 무작위로 사람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들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현세를 떠돌며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수를 하고서야 평안을 찾는다는 동양의 '권선징악'·'인과응보'라는 교훈적 의미와 한국인들의 '한(恨)'을 대변한다.

오늘날처럼 여자귀신이 공포의 대상으로서 정형화 된 것은 근대 이후로 보고 있다.<sup>40)</sup>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인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보다 억압된 존재였다. 우리 정서 속 귀신이야기가 한 맺힌 여인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귀신'은 서양의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인 '절대 악'의 개념과는 다르다.

37) '유교의 생사와 귀신문제', 김수청 석당논총, 2003, 제 33집 175p

38) '귀신과 귀신사이' 한겨레21 2001. 8. 22 (제372호)

39) '역사물과 공포영화', 백문임(2002). 민족문화사연구 제 20권, 민족문화사학회, p.325

40) '근대성과 여자귀신'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개교50주년 기념특집호 124p

역사학자 이이화씨는 “서럽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귀신의 개념을 형성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귀신을 악으로 보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부분이 많다” 한다.<sup>41)</sup>

#### 4. TV 프로그램의 폐지와 방송통제요인

방송에 대한 통제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나라의 방송제도,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방송관련 법제와 방송국의 조직 환경 그리고 방송인의 직업윤리 등도 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2)</sup>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송통제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크게는 방송사외부의 통제와 방송사내부의 통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사회 내에서 운용되는 방송에는 내, 외부에 존재 하는 많은 요인들이 일종의 통제작용을 한다. 여기서의 ‘통제(Control)’라는 말은 “매스미디어의 정보상품(output)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적 및 외적 요인들의 작용이나 그 힘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방송에서의 통제’란 방송외부로부터 나오는 압력은 물론 방송내부에서 프로그램 및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여러 요인들까지 포함한다.<sup>43)</sup>

방송통제 요인들로 주로 알려진 것은 법률에 의한 통제와 법률 외적인 통제를 포괄하는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사회적 통제, 그리고 내적 및 자율적 통제 등이 있다.

##### 1) 방송사 외부의 통제요인

방송사 외부의 통제 요인으로는 법 내외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통제 요인, 광고주로부터 받는 경제적 통제 요인, 문화적 사회적 통념에 의한 사회적

41) ‘귀신과 귀신사이’ 한겨레21 2001. 8. 22 (제372호) (재인용)

42) ‘방송편성론’ 한국방송학회, 1990, 서울남남 28-30p

43) ‘언론통제이론’ 서정수, 차배근, 최창섭, 1983, 서울 법문사 6-11p

통제 요인,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규제단체에서 정하는 제도적 통제요인이 있다. 이들은 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보원으로부터 수많은 통제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sup>44)</sup>

이러한 통제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 중요한 통제가 ‘정치적 통제’이다. 일부선진국가의 경우 정치적 통제가 경제적 통제에 밀리는 현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는 통제형태가 언론의 정치적 통제이다.

‘경제적 통제요인’은 방송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모든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방송사 또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거의가 재정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동시에 통제를 수반하게 된다.<sup>45)</sup>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광고료가 방송사 채원의 주 수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의 압력은 통제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통제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송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방송편성이나 폐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장치로서 국내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다. 다음은 방송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의 심의 의결 사항들이다.<sup>46)</sup>

- 첫째, 방송의 운영, 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한다.
- 둘째, 방송법인의 이사 임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 셋째,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연수사항들을 관장한다.
- 넷째,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수행한다.
- 다섯째로 시청자불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여섯째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하여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시청자 단체는 ‘사회적 통제요인’에 속한다.

44) ‘경제위기상황에서 TV방송 3사의 편성변화에 관한 연구’ 방송원 연세대 석사논문 13p

45) ‘언론통제이론’ 서정수, 차배근, 최창섭 1983 서울 법문사 153p

46)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김현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13p

다음은 최창섭(1983)이 ‘언론통제이론’에서 밝히는 ‘사회적 통제’의 개념이다.<sup>47)</sup>

“사회적 통제란 의미는 일정단체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생활, 가치관 등을 개인에게 일치되도록 교육시키거나 설득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회적 통제는 일정단체가 다른 단체의 행동을 결정짓거나 일정집단이 자체회원의 행동규범을 통제할 때, 또는 개인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통제가 발생한다고 예기된다.”

## 2) 방송사 내부의 통제요인

방송사 내부의 통제요인으로는 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주, 실제편성 작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등으로 분류 했다.<sup>48)</sup> “최근에는 시청자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방송사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sup>49)</sup>

방송사의 내적통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성과 봉사 목적이라는 공익성 간에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송사의 특성상 잘못 적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지나칠 정도로 편향된 통제력이 강함으로써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조절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에 대한 침해현상이 수반하게 된다.<sup>50)</sup>

김현중(2003)은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내적 요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sup>51)</sup>

“시청률은 최근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위성

47) ‘언론통제이론’ 서정수, 차배근, 최창섭 1983 서울 법문사 195p

48)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김현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45p

49) ‘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 변경과 시청률’ 2001 조성호 1p

50) ‘언론통제이론’ 서정수, 차배근, 최창섭 1983 서울 법문사 269p

51)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김현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17p

방송, 인터넷 방송 등의 동종매체의 확대는 채널 간에 시청자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의 싸움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 내적요인과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조직의 모든 요소가 최대 시청자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주성희(1994)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와 같은 방송사의 내부적 통제와 관련하여 편성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전체 잠재 수용자 (2) 경영정책 (3) 특정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특정수용자, 판매 잠재력 및 FCC 와 같은 규제기관의 요청사항 (4) 편성 책임자의 개인적 판단을 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내적 통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청자들의 직접적 피드백인 전화, 편지, 방문, 항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송국에 전달되어 편성에 반영되는 경우와 정부의 지침과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외부규제기관의 결정과 이에 따른 방송국 조직 내의 자율적 조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송사 외부와 내부의 통제요인들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요인들 상호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중복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성이나 폐지의 통제요인에 대한 논의는 그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sup>52)</sup>

### 3) TV 프로그램의 폐지와 시청률

국내 방송사 TV 프로그램의 정기개편은 주로 봄과 가을에 이뤄진다. 그리고 방송사의 이미지나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부분개편을 한다.

TV 프로그램의 개편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청자의 생활 시간대에 맞는 정규개편과 시청률이 다른 방송사보다 많이 낮거나 떨어지는 경우 경쟁력을 고려한 부분개편이 있다.

“방송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 되는 것은 시청률 자료이다. 시청률 자료를 편성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갱신,

52)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1994. 주성희, 언론 사회 문화(제 4호) 192- 194p

폐지, 시간대 이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고, 또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토대로 주변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새롭게 단장해 영향을 받고자 함이다.”<sup>53)</sup>

방송사들이 기존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신설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이유는 방송시장의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0년대 이후 지역 민영방송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방송사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상업방송의 주 수입원은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팔고 얻는 수익금이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1과 EBS를 제외하고, KBS2, MBC, SBS의 재정은 광고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 민방이나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포털 등의 등장으로 인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채널들의 시청자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최대 시청자 확보라는 사항을 가장 크게 고려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청률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나 폐지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실무자는 시청률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시청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4)</sup>

첫째, 포맷을 변화 하거나 편성상의 변화를 준다.

둘째, 선정적 장면이나 내용을 늘인다.

셋째,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외국과 타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것 등이다.

김현중(2003)은 방송사의 편성과 신설, 폐지행위에 있어서 시청률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이러한 경쟁심화체제에서 탄생되었다고 분석 했으며, 특히 방송사의 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sup>55)</sup>

53) '경제위기 상황에서 TV 방송 3사의 편성변화에 관한 연구' 1998 반승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11p

54)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연구', 주성희, 1994, 언론 사회 문화 (제 4호) 196p

55)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김현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46p

우리나라의 경우 92-93년도 폐지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한 주성희(1994)의 연구에 의하면 폐지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6)</sup>



56)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연구', 주성희, 1994, 언론 사회 문화 (제 4호) 206p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방송사의 프로그램 폐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물론 시청자 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내부요인인 방송사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폐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송사 내부의 통제요인인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신물’ 다크에 대한 시청률은 심야시간대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시청률 10위권 내에 진입하였고 시청점유율은 31.1프로를 넘기기도 하였다. 동 시간대의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광고를 유치하였다.<sup>57)</sup>

이후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는 방송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순위 4위<sup>58)</sup>에 올랐고 SBS ‘토요미스테리 극장’은 방송순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sup>59)</sup>

이처럼 ‘귀신물 다크’의 폐지원인은 방송사 내부의 통제요인인 시청률의 하락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신물 다크’의 폐지원인을 시청률과 관련된 방송사 ‘내부의 통제요인’이 아닌 ‘외부의 통제요인’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사 ‘외부의 통제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했다.

- ① 사회적 요인 : ‘사회적 통제요인’으로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시

57) [방송순위] 최고 시청률 기록 '꿈의 궁전' 4위 한국경제 | 기사입력 1997.02.03

58) [방송순위] SBS '대수술' 무력 부진 못 벗어나 한국경제 | 기사입력 1997-07-07

59) [주간시청률] (7.27-8.2) SBS '토요미스테리 극장' 7위 한국경제 | 기사입력 1998-08-04

청자 단체가 이에 속한다.

② 방송통제기구의 제도적 요인 : ‘제도적 통제요인’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송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방송편성이나 폐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장치로서 국내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다.

③ 정치적 요인 : 앞서 관련된 논의에서 언급하였지만 방송통제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 중요한 통제가 ‘정치적 통제’인데,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는 통제형태가 정치적 통제이다.

이상 세 가지의 방송사 외부의 통제요인들이 ‘귀신물 다큐’가 폐지되기까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기호학을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시킨 그레마스(A.J. Greimas)의 분석틀 중 하나인 ‘기호학적 4각형’을 ‘방송사의 통제요인들’과 ‘귀신물 다큐’에 적용하여 이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의미구조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그레마스의 의미소 개념을 적용한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방송사 내 외부통제요인과 ‘귀신물’ 사이에는 단순한 우호와 적대라는 대립적 의미소로만 평가할 수 없는 비 우호와 비 적대라는 또 다른 의미소가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레마스의 중요한 분석틀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행위소 모델’인데, 이 모델은 방송사의 내 외부적 요인(행위소)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귀신물 다큐’의 폐지와 관련하여 의도했던 중심적인 행위나 역할을 명료하게 밝혀 줄 것이다. 이러한 행위소들의 역할과 관계를 통해 그 당시 ‘귀신물 다큐’라는 장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2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통제요인들과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시청자단체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방송심의위원회  
회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정부의 의미  
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그레마스의 행위소모형을 적용한 내·외부의 통제요인들과  
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먼저 사회적 통제요인인 시청자단체의 의견을 살피기 위해 1997년부터 1999년 ‘귀신물 다큐’가 폐지되기까지 방송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시된 항의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방송통제기구의 제도적 요인’을 살피기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집 기록과 회의록을 주 분석대상으로 채택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제요인’에 대한 각 방송사들의 행동 지침과 정치적인 외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신문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기사내용들을 참고할 것이다.

### 2) 연구문제1>의 연구방법

첫째, ‘귀신물 다큐’ 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단체의 항의서 내용을 분석해 방송위와 시청자 단체의 관계에 대한 의미소를 생성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청자 단체의 항의서에 나타난 주요의견과 요구사항을 분류할 것이다.

둘째, 방송위가 시청자 단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996년 11월 ‘귀신물 다큐’ 방송 시작일로부터 1999년 2월 종영까지의 다큐멘터

리 이야기 속으로 110편과 토요미스터리 70편의 심의내용과 제재 횟수를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사례집과 225회 226회의 방송위원회 의록을 통해 분류확인 할 것이다.

셋째, 외부통제요인인 정치적 통제에 대해서는 ‘귀신물 다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내용에 대한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 2건과 중앙일보 2건의 단신보도를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작업결과와 그 당시 단신보도 등에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통제요인들의 각 의미소를 생성한 후에 이 모든 관계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표출단계와 심층단계의 의미구조로 나타낼 것이다.

### (1)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semiotic Square, carré sémiotique)

그레마스(Greimas)<sup>60)</sup>의 기호사각형은 “기호학적 제약의 놀이”(Les jeux des contraintes semiotiques; Greimas & Rastier,1970,179-205)라는 그의 논문에서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설계된 일종의 모델형태이다.

그레마스는 모든 의미작용의 내부에는 의미가 나타나는 ‘기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 논리적 모델이 기호사각형으로 “하나의 의미실질 혹은 의미범주 (Semantic Categories)가 대립된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의미범주 또는 의미실질이든, 이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61)</sup>

여기서 의미범주(혹은 의미실질)란 두 개념에는 공통되는 더 큰 개념이 존재하며, 대립된 양상에는 반대관계, 모순관계, 함의관계의 세 가지 ‘차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기호사각형은 수학에 있어 집합론을 모델로 하여 의미작용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 의미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가진 도구라 할 수 있다.<sup>62)</sup>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텍스트를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킴으로써 의미 생성의 과

60) 그레마스(1917-1992) Algirdas J. Greimas 프랑스의 언어학자이며 유럽의 현대 언어학사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생산성이 탁월한 '구조주의 의미론자' 또는 '생성적 기호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유명한 구조주의 의미론(1966), 그의 제자 코르테J.Courts와 공동 출판한 기호학과 언어. 분석적 사전(1979), 70년대와 80년대에 발표된 논문 모음집 이외에 수 많은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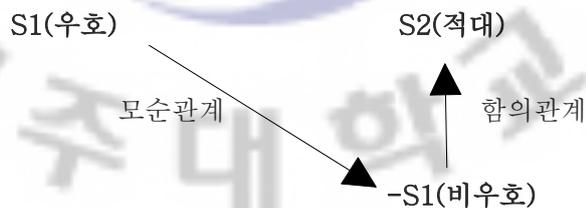
61) '과리학과 기호학', 박인철, 2003, 민음사, p.230.

62) Greimas, A, 김성도 역, '의미에 관하여', 1997, 인간사랑, p.182.

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호사각형은 DNA의 이중나선처럼, 서로 역으로 꼬인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축은 반대관계(S1과 S2, -S1과 -S2), 모순관계(S1과 -S1, S2와 -S2), 함의관계(-S1과 S2, -S2와 S1)로 나타나고, 또 다른 축은 모순관계가 부정 작용에, 함의 관계는 선택작용에 일치된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낮과 밤, 해와 달, 하늘과 땅, 남과 여, 오른쪽과 왼쪽, 건강과 병, 선과 악, 진리와 허위 등의 개념쌍들을 이항대립쌍 또는 이원항이라고 한다. 이항대립쌍들은 모든 텍스트 심층구조의 골간을 이룬다. 이러한 이항대립쌍들의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계열체(paradigm)를 발견하고 텍스트의 기호로부터 유추해 내는 것이 바로 의미소를 생산하는 기초가 된다. 이항대립주의(binarity)는 실상 새로운 관념은 아니고, 동양의 음양설의 역사만큼이나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sup>6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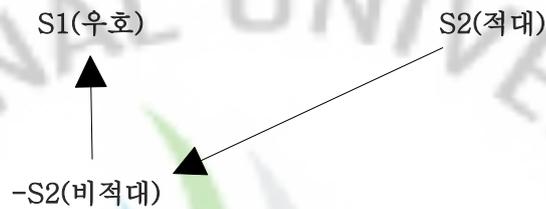
이러한 원리를 통해 기호사각형이 형성되는 최초과정을 쉽게 풀어보면 우선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차이'라는 점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달리 표현하면 '의미'란 이분법적으로 분절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은 '부정'과 관련한 차이에 의해서 존재하고, '우호'라는 의미는 '적대'와 관련한 차이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아래 그림에 적용하면 s1의 부정은 -s1, 반대는 s2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림 1> 기호사각형의 최초과정

63)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적 4각형(semiotic square)' 2008 신정철 광고커뮤니케이션론 5월21일 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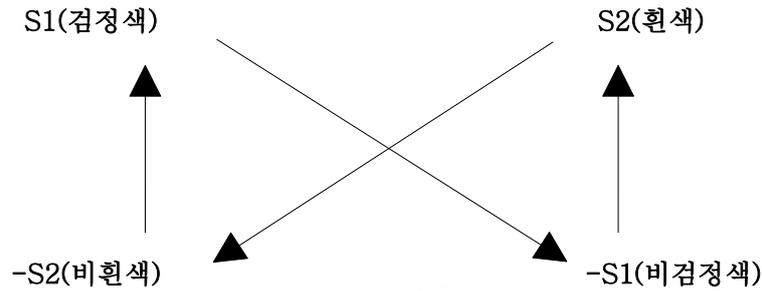
모순관계는 부정에 의해 성립되고, 함의관계는 긍정에 의해 성립된다. 그리고 s2는 s1과 반대관계로서 서로의 부정을 통해 형성된다. <우호>의 부정은 <비우호>가 되고, <비우호>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적대>가 된다. 동시에 <적대>는 출발 요소인 <우호>와는 반대말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s2에서 출발해 s1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2> 기호사각형의 두 번째 과정

기호사각형의 기본적인 의미구조에서 하나의 개념이 부정되는 방식은 의미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두 항처럼 ‘반대’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서로를 배제하는 ‘모순’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정색’이라는 항의 반대는 ‘흰색’이 되며, 모순은 ‘비검정색’이 된다. 그리고 반대항과 모순항은 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흰색’이라는 의미는 ‘비검정색’이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마스는 이처럼 공통의 의미축 위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의 기본 구조(structure élémentaire de la signification)’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구조를 다시 분절하여 ‘기호사각형’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도형으로 그려 앞의 도식과 합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얻어지는데, 이것이 기호사각형이다. 결론적으로 기호사각형은 아래와 같은 네 요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 두 개의 반대관계 : s1과 s2 및 -s과-s2사이
- 두 개의 모순관계 : s1과 -s1, s2와 -s2사이
- 두 개의 보완 및 함의관계 : s1과 -s2사이, s2와-s1사이

이것은 심층에서 표층으로의 이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의 부정, 모순관계는 결과적으로 사각형의 상호 상관관계로 발전 하면서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의 틀을 제공한다.<sup>64)</sup> 그레마스는 이러한 의미소들의 작용내부에는 의미가 나타나는 ‘기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 논리적 모델이 ‘기호사각형’으로 “하나의 의미실질 혹은 의미범주(Semantic Categories)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의미실질이든, 어떤 의미범주든 이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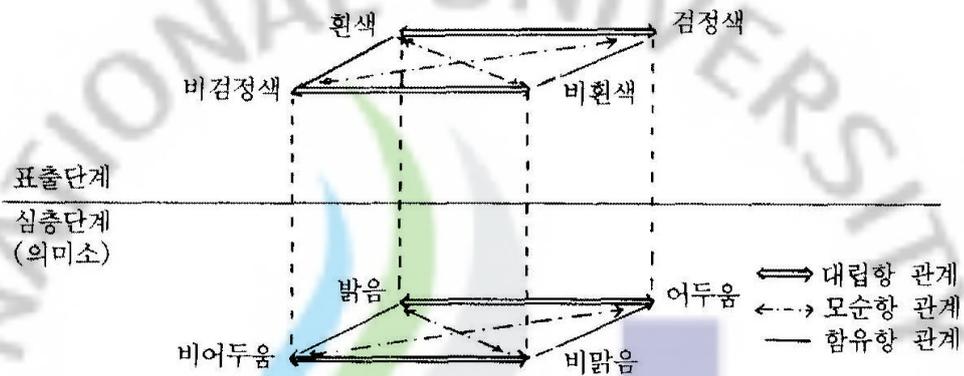
## (2) 그레마스의 표출단계와 심층단계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서 ‘흰색’은 ‘비흰색’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깔인 ‘검정색’과 ‘비 검정색’으로 함께 설명된다. 즉, ‘흰색’이 아닌 것이 항상 ‘검은색’이라고 할 수 없듯이, ‘검정색’이 아닌 것이 반드시 ‘흰색’은 아닌 것이

64)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94 박기순, 백선기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53p

65)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적 4각형(semiotic square)’ 2008 신정철 광고커뮤니케이션론 5월21일 4 p

다 따라서, ‘흰색이 아닌 색(비흰색)’과 ‘검정색이 아닌 색(비검정색)’이 존재하며, 이들 역시 ‘대립의 관계’속에 있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의미소들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기호들과 의미소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복합구조’를 가지고 서로 연계된다. 66)



<그림 4> 기호와 의미소의 복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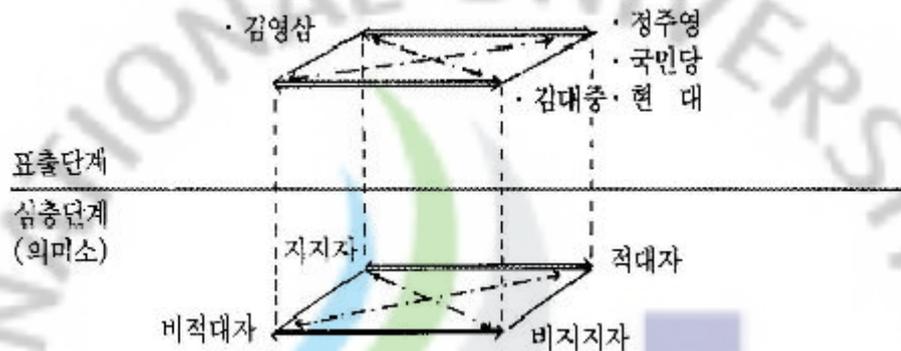
박기순, 백선기(1994)는 부산기관장모임의 담론분석을 통해 나타난 각 의미소들과의 관계를 ‘그레마스의 사각형에 적용하여 대선에 참여한 각 후보와 정당들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대선에 출마한 대선후보와 정당들에 대한 의미구조 관계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들과의 관계를 표층단계에 그리고 심층단계에서는 지지자, 적대자, 비적대자, 비지지자라는 의미소를 중심으로 나타냈다.67)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영삼후보측에서의 경쟁상대자가 의외로 김대중후보가 아닌 정주영후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대중후보가 가장강력한 상대자이긴 하

66)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94 박기순, 백선기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54p

67)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94 박기순, 백선기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61-175p

나 김영삼후보측의 지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정주영후보는 김영삼후보 지지표를 잠식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의미구조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림 5> 경쟁상대자 의미구조

이처럼 그레마스의 분석틀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잘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인 각 의미소들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각 통제요인들과의 관계를 우호, 적대, 비 우호, 비 적대라는 의미소를 표층단계와 심층단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방송통제요인들과 '귀신물 다큐'의 관계가 표층단계에서 대립하는 구조로 배치한 후에는 심층단계에서 우호, 적대, 비적대, 비우호라는 의미소를 적용하여 이들 방송통제요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문제2>의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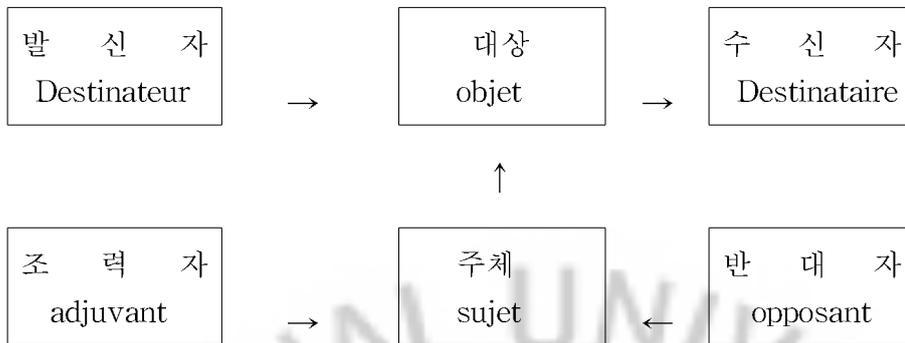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문제 1의 결과들을 통해 얻은 각각의 통제요인들과 ‘귀신물 다크’의 의미구조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적용하여 보면, 모든 내 외부적 방송통제요인들이 ‘귀신물 다크’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폐지하기까지 어떠한 역할과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관계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 (1)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model actantiel/ Aktanten modell)은 그의 초기 저서 구조의미론(1966)에 제시된 도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실제 한국 문학 작품의 분석에도 자주 적용되어 왔다. ‘행위소 모델’은 이야기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행위소)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의도하는 중심적인 행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모델이다. 먼저 이야기의 ‘주체(sujet)’와 ‘대상(objet)’을 선정해서 이야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인공(중심주체)과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행동(중심행위) 및 그 대상에 대한 관계를 자세하게 나타낸다.<sup>68)</sup>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주로 ‘연접(Conction)’이나 이접(disjonction)’의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연접의 관계란 주체와 대상이 포함적인 관계나 소유관계 등에 있을 때를 일컬으며, 이접의 관계란 주체와 대상이 갈등관계나 포함적이지 못한 관계 등에 있을 때를 가리킨다. 또한 ‘조력자(adjutant)’와 ‘반대자(opposant)’라는 행위소도 등장하는데, 이는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를 도와주는 자’와 ‘주체를 반대하는 자’로 대립적인 관계를 띠면서 나타난다.

68)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의 수용과 해석 문화연구’, 김태환, 2004 1p



<그림 6> 행위소 모델의 분석틀

그림 5는 ‘발신자(Destinateur)’와 ‘수신자(Destinataire)’라는 또 다른 행위소들의 관계인데 이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그레마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야기에 보편적으로 6개의 배역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시켰다<sup>69)</sup>

김태환(2004)은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행위소 모델들의 관계를 ‘신데렐라 이야기’를 예로 들어 비교적 쉽게 설명하였다.<sup>70)</sup>

“주체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 또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욕망의 관계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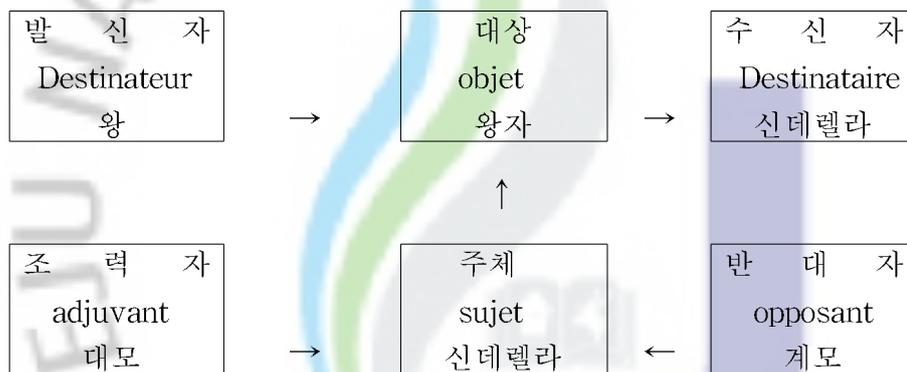
“탐색의 과정에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방해자가 개입을 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신데렐라가 왕자라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무도회에 가려고 할 때, 대모가 나타나서 마법의 지팡이로 도움을 준다. 반면에 계모는 많은 일거리를 주어 신데렐라의 탐색을 방해한다.”

69)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94 박기순, 백선기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55-156p

70)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의 수용과 해석 문화연구’, 김태환, 2004 2-3p

“그레마스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즉 전달의 축을 이룬다고 말한다. 주체→대상의 도식은 결국 대상이 주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왕자는 신데렐라의 차지가 된다). 그리고 발신자 → 대상 → 수신자의 도식에 따르면 ‘대상’은 ‘수신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즉 욕망의 대상에 관해 알리는 자가 ‘발신자’이고(예컨대 왕은 전국에 방을 붙인다), 이를 통해 욕망의 대상을 알게 되는 자가 ‘수신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데렐라의 이야기 속 인물들의 관계를 행위소 모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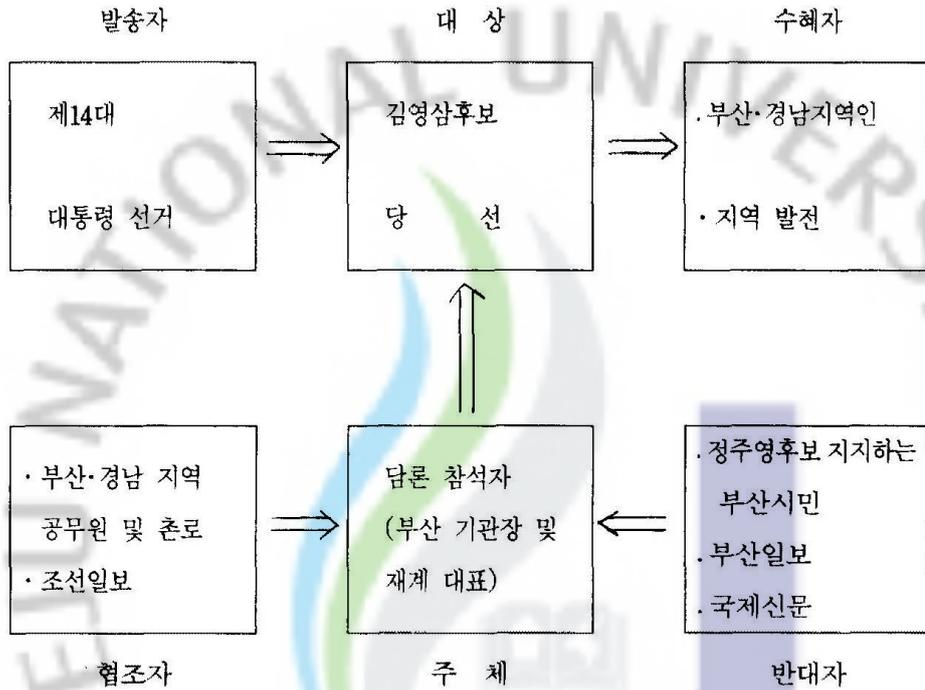
<그림 7> 신데렐라 이야기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 (2) 부산기관장모임의 행위소 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례로서, ‘박기순, 백선기(1994)’의 연구를 예로 들어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들은 부산기관장모임의 담론분석을 통해 나타난 각 의미소들과의 관계를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의미구조를 만들어냈고 그런 이후 또 다시 모든 의미소들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적용하였다.

다음은 ‘박기순, 백선기(1994)’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신문사, 지역감정 그리고 대선에 참여한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과의 전체적인 행위소들의 관계이다.



<그림 8> 부산기관장모임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박기순, 백선기(1994)’는 위 그림의 ‘행위소’ 또는 ‘행위주’들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체와 대상’의 관계와 둘째, ‘협조자와 반대자’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송자와 수취인 또는 수혜자’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71)</sup>

① 주체와 대상 : 담론참석자들의 목표는 ‘김영삼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71) ‘부산 기관장 모임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94 박기순, 백선기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61-175p

고 이것이 바로 이 담론에서 지니고 있는 ‘목적대상’이며, 그렇게 해야 부산지역이 발전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② 협조자와 반대자 : 주체와 관련지어 ‘협조자’는 부산이나 경남지역, 특히 울산지역에서 정주영 후보에게 향하는 김영삼 후보에 대한 이탈표들을 견제하는 것으로 협조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정주영 후보를 극히 | 비난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 ‘반대자’는 동향 후보자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반대자이다.

③ 발송자와 수취인 : 이 담론의 대상인 ‘김영삼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된 ‘발송자’는 ‘정권교체의 계기를 준 제 14대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혜택을 보는 수신자 또는 수혜자는 ‘부산 · 경남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들은 동향의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같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앞서 ‘신데렐라의 행위소 모델’ 사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행위소가 둘이 된다고 하였는데, 대상이 당선되는 경우, 담론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부산·경남지역인들 역시 지역발전을 통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담론참석자들이 주체이면서 수혜자가 되기도 하지만 부산·경남지역인들과 지역발전 또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레마스의 분석틀’을 이용해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적인 각 행위소들을 통해 자세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문제 2>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귀신물 다큐’와 내 외부적인 통제요인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

#### 1) 연구문제 1-1)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시청자단체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 (1) 시청자 단체의 항의서 주요 내용

외부통제요인으로 분류된 시청자 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폐지에 영향을 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방송위원회에 보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귀신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윤실’의 ‘귀신물’에 대한 방송법 적용사례

- ...아무리 시청자의 체험이라 하더라도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 음식을 바친 후 귀신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5조에 위반됨

- ...소복여인이 나올 때는 연기가 깔리고 자막까지 흔들리게 처리를 하여 귀신의 출연과 공포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5조)

- ...소복입은 여인이 창가에서 손짓하는 장면이나 빨간 눈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시청자의 뇌리에 영상으로 남으며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장면으로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것이다.(6조 2항, 50조)

-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제 50조)

•...방송은 ...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 6조 20항)<sup>72)</sup>

•...시청자의 정서에 유해하며 귀신이나 영물의 존재에 매어 살도록 조장하는 이 프로는 분명히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7조2항: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17조 2항: 국민의 정서와 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55조)<sup>73)</sup>

#### <2> 기윤실의 귀신물에 대한 입장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시청자 개개인에게는 미지의 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혹시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귀신의 출현에 대한 공포심만 심어줄 뿐이라고 보아집니다. (중략)

국민의 정서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귀신 이야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귀신에 대한 소재를 귀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sup>74)</sup>

•...본 기윤실은 MBC 측이 귀신 소재를 계속적으로 다루는 이상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측면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문화방송사에 귀신 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며(4월 29일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청자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sup>75)</sup>

#### <3> 기윤실의 전문가 의견

▶전우택 (연세대 정신과 의사)

72)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시정조치 요청 1997 . 4. 17 115-118 p

73)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1997 . 5. 6 135 p

74)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재차 시정요청 1997 . 4. 29 139 p

75)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1997 . 5. 6 133 P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 중 몇몇 환자들은 이 프로를 보고 몹시 무서워하고 불안 및 불면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에 못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①. 할 수 없이 계속 제작을 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프로그램의 성격을 다큐멘터리 형식에서 픽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그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다.

▶안정임(순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는 귀신이라는 센세이션얼한 소재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까지 파고든 프로그램이다. (중략) 귀신이라는 선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방응진 연구원 (한국 방송 개발원)

... 샤머니즘의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사회에서 미신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러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76)</sup>

위와 같이 ‘기운실’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귀신물 다큐’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입장과 둘째는 비과학적이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귀신물 다큐’ 방송은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공포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주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운실’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시청자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강한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76)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1997 . 5. 6 136-137 P

수 있는 것은 ‘귀신물 다크’ 폐지원인의 최초 시발점이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외부적 통제요인은 바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인 ‘기운실’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5공말,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때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던 몇몇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1987년 봄에 처음으로 구상하였다. 장기려, 이명수, 이만열, 최창근, 이세중, 김인수, 손봉호, 원호택 등 38명의 기독교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1987년 12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모임이다.<sup>77)</sup> ‘기운실’의 언론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업, 언론, 출판 등 사회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진실을 확인한 후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계와 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도덕을 시민의 자격으로 이를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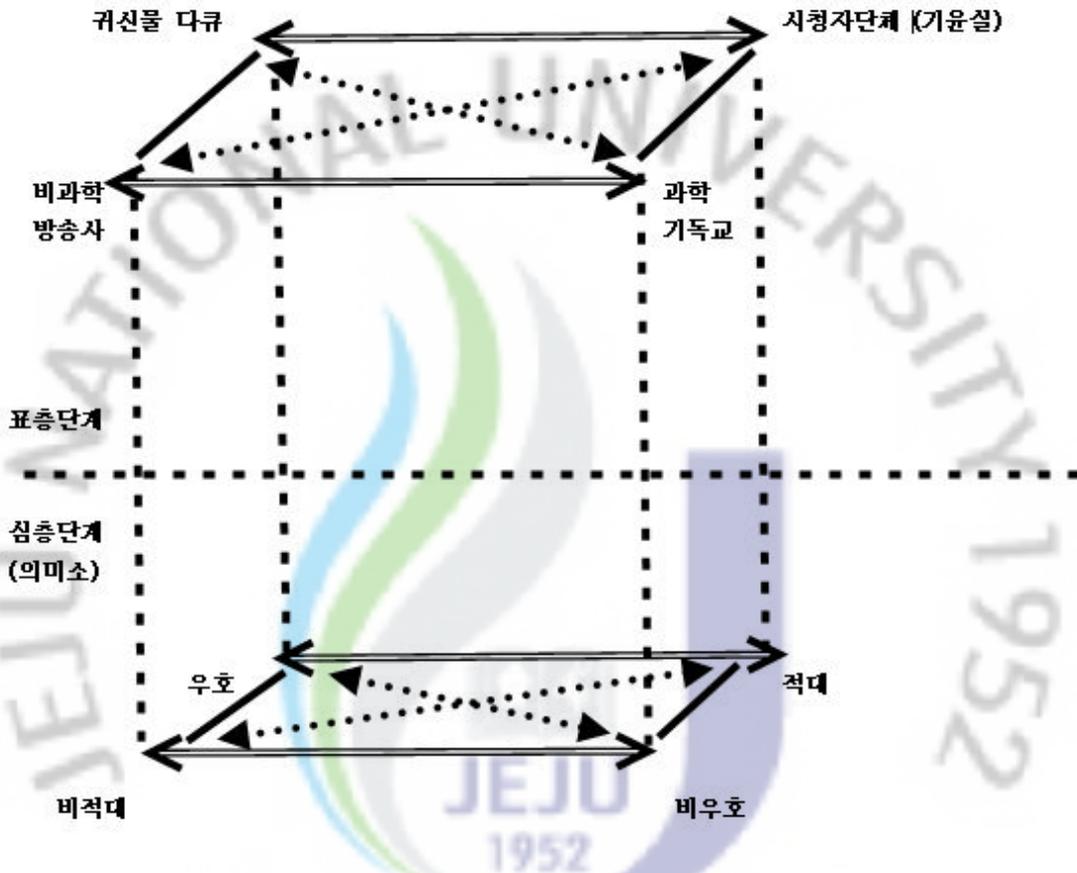
‘기운실’은 현재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이며,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이다. 약 70여개의 교회와 후원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많은 공공사업과 목회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때 회원수가 14,000 명이었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약 10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sup>78)</sup>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방송물 관련 활동으로는 2003년 가수 박지윤의 ‘할줄 알아’를 지나친 성적표현과 노골적인 가사라는 이유로 ‘영상등급위원회’에 재소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로 선정하였고, 방송불가 판정을 받게 한바 있다.

7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기운실의 역사’ <http://trusti.kr>

78) ‘섬김을 통한변화’ 기운실 2009년 사업계획발표 2009.2.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m](mailto:dwlee@chtoday.com)

## (2) 귀신물과 시청자 단체의 의미구조

다음은 '귀신물 다크'와 '기운실'과의 관계를 우호와 비 우호, 적대와 비 적대라는 의미소 개념을 통해 나타난 의미구조이다.



<그림 9> 외부적 통제요인인 시청자 단체의 의미구조

'기운실'의 항의서를 분석해서 나타난 의미소들과의 관계 중 특이한 점은 시청자단체와 기독교 그리고 과학의 의미소 관계이다. 위 그림 8에서 보여주듯이 귀신물 다크를 방영하는 방송사는 비 과학에 속해 있지만 기독교는 과학과 함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위 그림에서 나타난 각 의미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① ‘기운실’의 주요 지적사항중 하나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방송위에 제시 한 것이다. 따라서 ‘기운실’은 그레마스의 의미구조 안에서 과학이라는 의미소와는 함의관계를 가지게 된다.

② ‘기운실’은 시청자 단체이면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의미소는 ‘기운실’과는 함의관계가 된다.

③ ‘귀신물 다큐’는 ‘기운실’에서 비과학적이라고 지적 하였으므로 과학과는 반대적 입장인 ‘비 과학’이라는 의미소와 함의관계를 형성한다.

④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매체이다. 물론 일부 시청자단체의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이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 ‘귀신물 다큐’는 시청률이 높고 방송사에 큰 수익과 명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귀신물 다큐’와 함의관계이다.

위 설명 ①의 경우 그레마스의 의미구조 안에서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듯이 기독교 또한 과학과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 위 그림 8을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와 ‘기운실’ 그리고 과학이라는 함의관계는 기독교 단체에서 과학이라는 척도를 ‘귀신물 다큐’에 적용하게 되면서 과학이라는 의미소가 기독교와는 모순이 아닌 함의관계가 되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 2) 연구문제 1-2)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크’와 방송심의위원회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 (1) 기윤실의 의견과 방송위의 제재

‘방송위’와 ‘귀신물 다크’와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와 ‘기윤실’과의 관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1)의 분석에 나타난 ‘기윤실’의 주장은 ‘귀신물 다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자체적으로 분석한 방송법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방송위에서 ‘기윤실’이 제시한 의견과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기윤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분류 했다. ‘기윤실’에서 제시한 주요 방송법 위반은 다음과 같다.

-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5조 위반
-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장면으로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것이다.(6조 2항, 50조)
-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제 50조)<sup>79)</sup>

다음은 방송위원회가 위의 지적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표를 구성하였다.

79) MBC 다크멘터리 이야기속으로 시정조치 요청 1997 . 4. 17 115-118 p

채널명	프로그램명	위반사유	제재종류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li> <li>-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 저해</li> <li>- 시청자에게 충격, 불안감 조성</li> <li>- 개인의 초상권 침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5회</li> <li>- 법정제재 2회</li> <li>- 해당방송순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 징계</li> <li>- 시청자에 대한 사과</li> </ul>

<표 1>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방송제재 총 횟수 및 위반사유 내용

채널명	프로그램명	위반사유	법정제재 내용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li> <li>- 사회윤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저해</li> <li>-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내용</li> <li>- 방송시간대 부적합</li> <li>- 간접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4회</li> <li>- 법정제재 9회</li> <li>- 해당방송순서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징계</li> <li>- 해당방송순서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연출정지</li> <li>- 시청자에 대한 사과</li> </ul>

<표 2> ‘토요미스터리극장’ 방송제재 총 횟수 및 위반사유 내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운실’의 지적사항과 방송위에서 결정내린 위반사항은 거의 대부분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 5월 7일 ‘기운실’에서 방송위에 보낸 공개질의서 발송의 내용을 보면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방송위에서는 5

월 21일 226차 심의에서 해당방송순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 징계라는 강도 높은 법정제재를 결정 했다.<sup>80)</sup>

다음은 1997년 5월 7일 ‘기운실’ 밝은문화 모니터팀 정책부장이 방송위에 보낸 공개질의서 요구사항이다.

① 2회에 걸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류의 귀신내용이 방영되는 것에 대한 귀 위원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② 심의기준 제 55조의 “방송은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서 다루는 ‘귀신’ 소재의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③ 공중과 방송에서 귀신소재를 다큐멘터리로 재연하는 것에 대하여 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up>81)</sup>

또한 같은 날짜에 보내진 전문가 의견란에 전우택 연세대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이 ‘귀신물 다큐’ 때문에 정식적 피해를 호소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sup>82)</sup>

“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①. 할 수 없이 계속 제작을 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프로그램의 성격을 다큐멘터리 형식에서 픽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그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다.”

80) ‘방송심의 월보’ 방송심의위원회 97. 05 16 p

81) 기운실 밝은 문화 모니터 팀 방송위원회에 공개질의서 발송 1997 . 5. 7 142 p

82)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1997 . 5. 6 136 P

이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후 TV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닌 드라마 이야기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바뀌고 최초 기획 의도였던 낚람특집 ‘귀신물 다큐’로서의 성격을 잃고 일상생활에서의 에피소드로 대체된다.

SBS ‘토요미스터리 극장’의 경우는 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1997년 7월 7일 229차 심의에서 해당방송순서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 걸 시작으로, 1997년 10월 8일 235차 심의에서는 이미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5건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무더기 법정제재와 함께 9월 15일 추석특집에 대해서 해당방송 순서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연출정지라는 방송사로서는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

다음은 방송위 회의록 중 당시 정황이 담긴 일부 내용이다.<sup>83)</sup>

000 부위원장

- “시청하신 프로그램은 미신내용 제 17조제2항, 제 50조 제 1항 폭력묘사, 제55조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금지 등의 사유로 법정제재가 건의 되었다.”

(중략)

000 위원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건의한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3 차례에 걸쳐 사과방송을 받았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실무진의 약속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중 9월 15일 방송분은 이전에 사과방송 받은 프로그램을 재편집해서 방송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시청자를 무시, 농락하는 것이다.”

(중략)

83) 제 235차 방송위원회(정기)회의 1997.10.08 255p

000 위원

-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5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징계는 일정기간 연출 정지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실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제작하였다고는 하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상상력이 빈곤하고 화면이 조악할 뿐만 아니라 저질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출자의 연출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위’는 만장일치로 연출자 2인중 신입인 이PD를 2개월 그리고 방송초창기부터 연출한 박PD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해당프로그램 연출정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방송위’의 제재에 대해 PD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방송사의 제도적 요인과 방송사라는 위치관계를 엿볼 수가 있다.

다음은 이러한 방송실무자의 항의에 대한 방송위의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다.<sup>84)</sup>

000 부위원장

- “ ... 또 SBS 측에서 제기한 의견진술시 위원회의 고압적인 태도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000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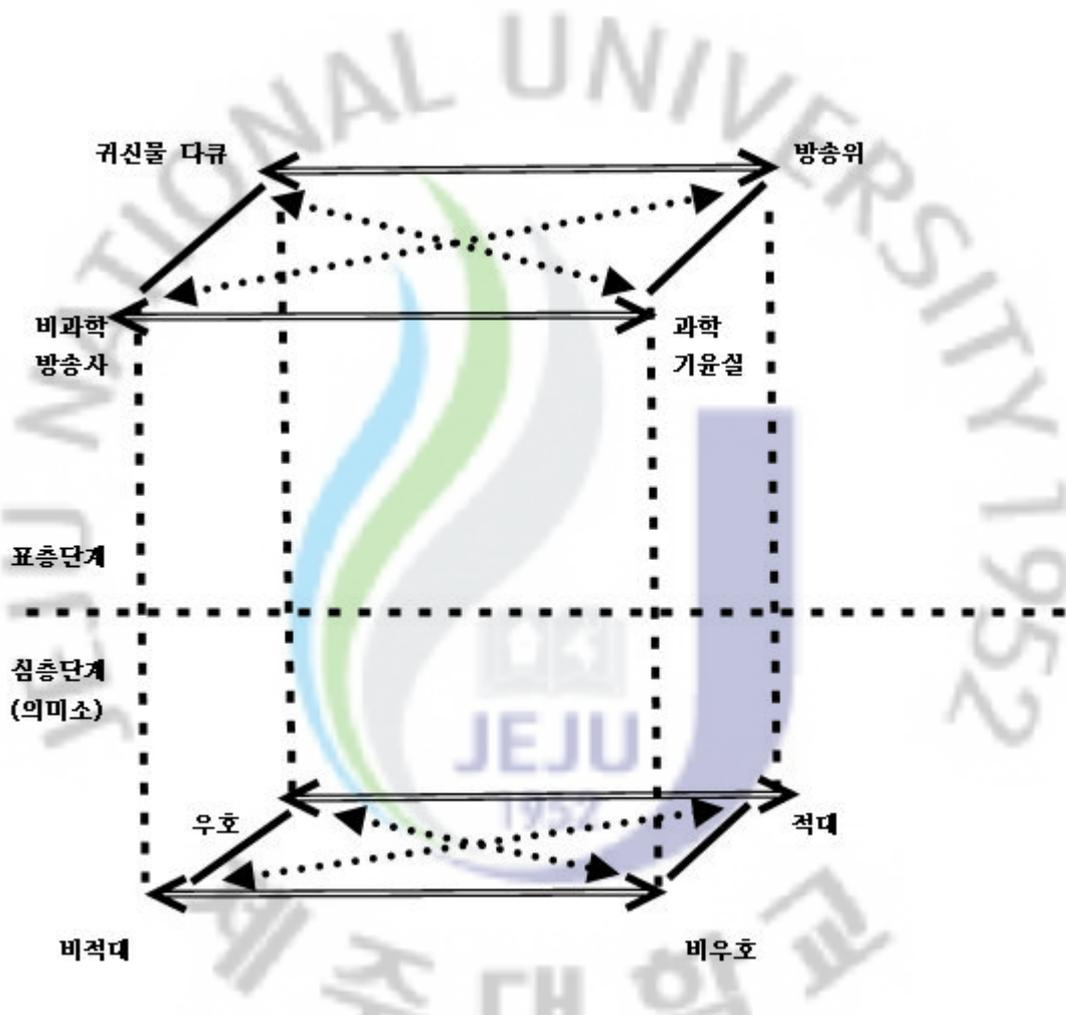
- “PD들이 집단으로 항의방문을 한 것은 간과 할 수 없는 위원회에 대한 도전이다. PD가 직접 위원회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방문을 원한다면 SBS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옳은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권위문제로 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걸려 있는 문제다. 그들의 면담을 받아들인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송위’는 ‘방송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라는 권위를 중시하는 입장과 고압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자체의견을 볼 수가 있다. 어찌됐든 ‘기윤실’의 항의서와 ‘방송위’의 법정제재 내용을 비교 했을 때 나

84) 제 236차 방송위원회(정기)회의 1997.10.08 274p

타난 결과는 종교단체인 ‘기윤실’의 의견을 ‘방송위’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신물 다큐’와 ‘방송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지게 된다.

(2) ‘귀신물 다큐’와 방송위의 의미구조



<그림 10> 외부적 통제요인인 방송위의 의미구조

방송위는 ‘기윤실’의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귀신물 다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함의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기운실’의 요구가 ‘귀신물 다크’에 반영되면서 애초 기획의도였던 여름철 납량특집을 겨냥한 공포물에서 귀신의 등장도 사라지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대체된다. 더욱이 기존 공포물과는 차별선언을 했던 다크형식에서 드라마로 바뀌면서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에서는 광고수익률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내부통제요인인 방송사와 외부통제요인인 ‘기운실’, ‘방송위’와의 사이에는 대립과 모순관계가 형성된다.



### 3) 연구문제1-3)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이용한 '귀신물 다큐'와 정부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 (1) 정부의 방송개혁

1998년 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상업성에 치우친 방송의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방송이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흥미위주로 말초 신경을 자극, 사회의 건전성을 이끄는 사명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sup>85)</sup> 정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998년 12월 14일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

방송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전담하게 될 방송개혁위원장이인 강원용 목사는 "우리 방송은 흑백TV 때보다도 내용에서 보면 더욱 나빠졌다"며 그 당시의 방송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대적인 방송개혁 의지를 천명한다.<sup>86)</sup>

이러한 정부의 정치적인 통제를 감지한 당시 공중파TV 3사의 담당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TV 3사의 편성담당관계자들은 1999년 12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편성임원회의를 갖고 "소모적인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방송협회(회장 박권상)는 이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선언을 채택하고 실천사항을 통해 KBS '미스터리 추적', MBC '다큐 이야기 속으로', SBS '토요미스터리 극장' 등 비과학적이고 미신 조장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다.<sup>87)</sup>

이러한 그 당시 외부의 정치적인 통제에 대한 방송사들의 움직임을 그 당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29일의 갑작스러운 편성기조 선언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의 선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방송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전담하게 될 방송개혁위원회 강원용위원장조차 ‘방송프로 불량식품론’을 밝히는 등 잇따라 방송개혁 의지를 천명한

85) [미디어 다시보기] '방송사 자정선언 실천여부 관심' 1998.12.30 19:07 진성호 기자 ·shjin@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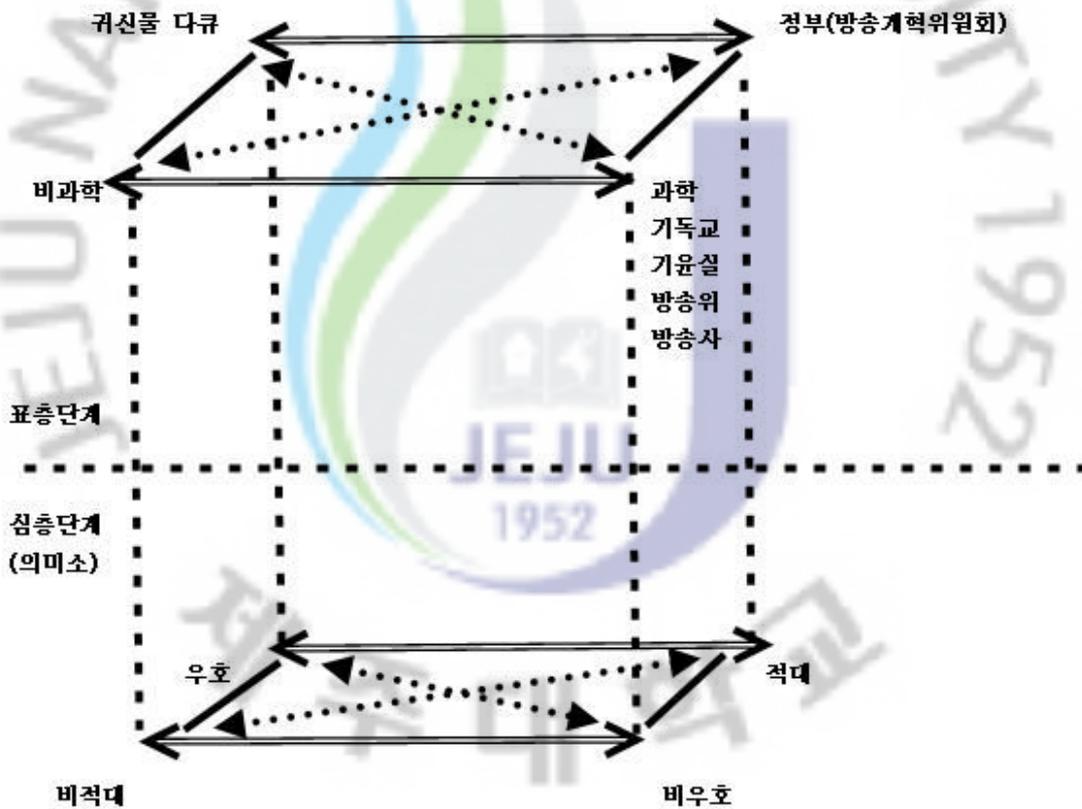
86) 'TV 3사 내년부터 공영성 강화...연예인프로 등 대폭 감소' 1999년 2월 이승현 기자 yenglish@donga.com

87) 'TV 3사 "시청률경쟁 안한다"' 1998.12.29 19:09 진성호기자 · shjin@chosun.com

데 따른 발 빠른 행보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MBC와 SBS는 최근 자체적으로 공영성 강화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sup>88)</sup>

이처럼 그 당시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외부적 통제요인인 정부의 정치적 압력은 ‘귀신물 다큐’의 폐지에 마지막 요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귀신물 다큐’ 그리고 외부통제요인인 ‘정부’와의 의미구조이다.

(2) ‘귀신물 다큐’ 그리고 ‘정부’와의 의미구조



<그림 11> 외부적 통제요인인 방송위의 의미구조

88) ‘TV 3사 내년부터 공영성 강화...연예인프로 등 대폭 감소’ 1999년 2월 이승현 기자 yenglish@donga.com

‘귀신물 다큐’ 그리고 ‘정부’와의 의미구조로 들어오면서 ‘귀신물 다큐’와 ‘기독교’는 또 다시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기독교’는 앞서 ‘시청자단체’와의 의미구조에서 이미 ‘기윤실’, ‘방송위’ 등과는 함의관계였다. 여기서도 ‘기독교’는 ‘정부’와 또 다른 함의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부연설명 하자면 ‘귀신물 다큐’의 폐지에 결정적 영향을 준 ‘방송개혁위원회’의 강원용 위원장은 ‘개신교’의 목사였다. 어찌됐든 ‘기독교’와 당시 ‘정부’는 함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점은 그동안 ‘귀신물 다큐’와는 함의관계가 있었던 내부 통제요인인 ‘방송사’가 모순관계로 급 전환 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원인을 추론 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여러 차례 ‘기윤실’의 압력과 방송위의 강도 높은 제재 그리고 더 이상 귀신물이 아닌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더욱이 다큐에서 드라마 형식으로의 대수술을 거친 ‘귀신물 다큐’는 이미 방송사의 고위층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였을 수 있다.

둘째, ‘귀신물 다큐’는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률은 타 프로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방송사에서는 정부에서의 강한 정치적 압력을 미리 예상하여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방송사 내부 상황을 알 방법은 없지만 과거 군사독재시절 방송사의 누구하나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적이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치와 방송사와의 민감한 관계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방송사’가 정부라는 통제요인이 등장하면서부터 ‘귀신물 다큐’와는 ‘우호’가 아닌 ‘비우호’라는 의미소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 2. 연구문제2>의 연구결과

지금까지 연구결과> 1에서 ‘귀신물 다큐’의 폐지에 영향을 준 내 외부 통제요인들의 의미구조를 살펴 보았다. 다음은 각 의미구조에 나타난 통제요인들을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적용하여 ‘귀신물 다큐’의 폐지와 관련한 각각의 역할과 모든 행위소들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 1)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

지금까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귀신물 다큐’ 폐지에 영향을 준 통제요인은 크게 사회적 통제요인인 ‘기윤실’, 제도적 통제요인인 ‘방송위’, 정치적 통제요인인 ‘정부’ 세 가지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의 정점은 시청자단체인 ‘기윤실’의 ‘방송위’에 협조를 구하는 항의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세 가지 중 가장 주도적으로 폐지에 영향을 준 ‘행위주체(Subject)’는 ‘기윤실’이라고 봐야한다. 여기서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고자 하는 ‘기윤실’의 사회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독교적 윤리관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라는 점이다.

‘기윤실’이라는 행위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단체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공통적인 목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귀신 즉, 악마를 물리치는데 있다.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기독교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윤실’의 ‘목적대상(Object)’이다. ‘기윤실’의 기독교적 신앙을 기초로 했을 때 ‘귀신물 다큐’는 이교도의 신앙대상이며, 악마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시청자 또는 국민들에게 기독교적 윤리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귀신의 존재를 다루는 ‘귀신물 다큐’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2) 조력자와 반대자의 관계

앞서 연구방법 2>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예로 들었듯이 주체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 또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이며,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방해자가 개입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는 왕자라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무도회에 가야한다. 이때, 계모는 많은 일거리를 주면서 방해한다. 반면에 대모는 마법의 지팡이로 신데렐라의 탐색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도 주체인 '기윤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의견을 같이 하는 행위소라고 한다면 '방송위' 그리고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연구결과 1-2)에서 나타나듯이 '주체(Subject)'인 '기윤실'이 '귀신물 다큐'라는 '대상(Object)'에 대한 제재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제적인 '조력자'이며, 후자인 '정부'는 방송사로 하여금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는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가장 강력한 행위소이다. 연구결과 1-3)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의 방송선정성을 시작으로 강원용 목사의 강한 방송개혁의지는 방송사들이 스스로 편성기조 선언을 할 정도로 강한 정치적 압력을 주었다. 따라서 '주체'의 목표인 프로그램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도움을 준 '조력자'는 '방송위' 그리고 '정부'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반대자는 '귀신물 다큐'를 제작하던 방송 실무자들이다. 시청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귀신물 다큐'를 즐겨보는 시청자 역시 반대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포털을 통해 네티즌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서 광고주를 압박하는 등의 활동은 전무한 시기였다. 시청자의견은 일부 활동적인 사회단체(또는 시청자단체)에 의해서만 반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청자는 '반대자' 또는 '조력자'라는 '행위소'는 될 수가 없다.

다음은 이번 연구에 있어서 '조력자' 그리고 '반대자'의 관계에 대한 가장 난해한 현상이다. 바로 '방송사'라는 '행위소'의 행보에 관한 문제점인데 정부의 개입이 작용하기 전에는 방송사 또한 광고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반대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라는 강한 정치적 통제요인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방송사'(또는 방송사의 고위간부)는 '반대자'에서 급전환하면서 '조력자'의 편에 서게 되어버린 것이다. '방송사'는 이번 행위소 모델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은 최초의 '발송자'인 '행위소'이며, '주체'의 '반대자'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 3)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

이번 행위소 모델에서 ‘방송사’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환하는 성격을 가진 ‘행위소’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귀신물 다큐’의 폐지원인에서 가장 큰 역할은 이 모든 사건의 최초시발점인 ‘귀신물 다큐’의 방송을 허가한 ‘발신자’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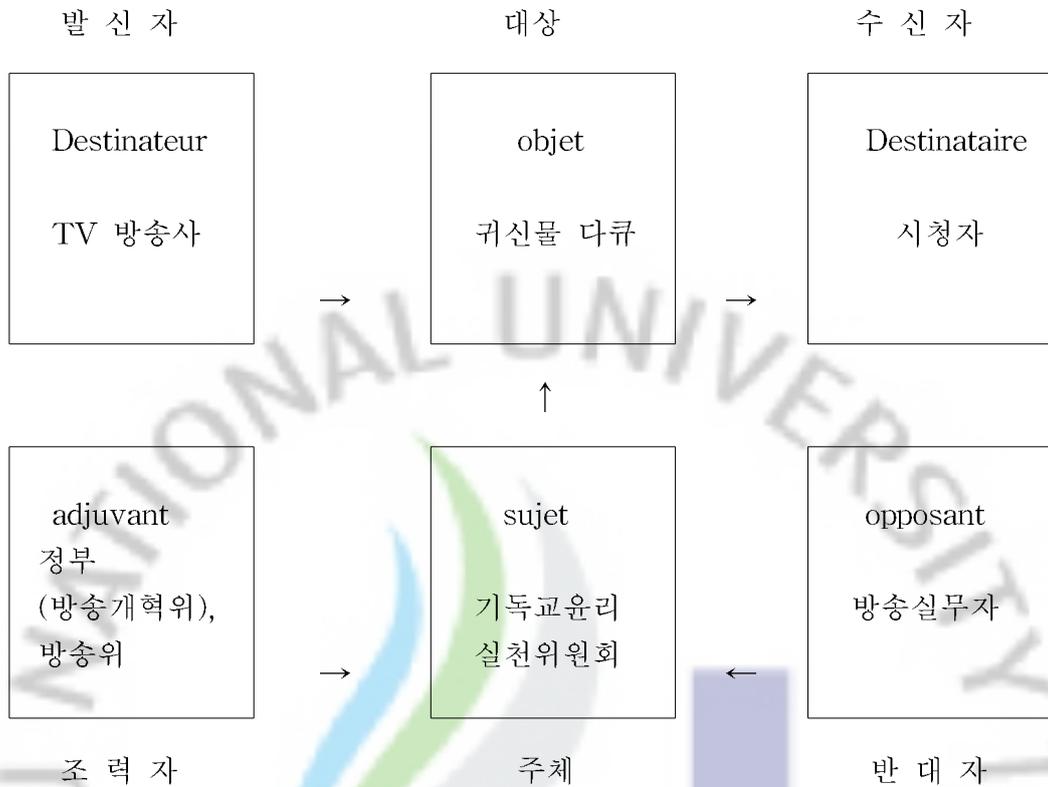
정리하자면 ‘귀신물 다큐’라는 ‘대상’이 ‘발신자’에 의해 방송이 되면서 ‘수취인’인 시청자가 수신을 받게 되고, 이를 지켜본 ‘기윤실’이라는 ‘주체’가 행위 하게끔 자극을 준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혜택을 보는 ‘수신자 (또는 수혜자)’는 시청자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물 다큐’의 시청률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귀신물 다큐’를 즐겨보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주체’와 관련하여 ‘반대자’인지 또는 ‘조력자’인지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기윤실’이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야함으로 ‘기윤실’은 사회단체로써 시청자의견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기독교의 윤리를 통해 보호받고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연구방법에서 살핀 ‘신텔레라’라는 ‘주체’ 역시 ‘수혜자’가 된다는 문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체인 ‘기윤실’은 ‘대상’인 ‘귀신물 다큐’를 폐지시킴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시청자’를 악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에 ‘주체’ 역시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윤리실천 위원회’라는 시청자 단체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체’는 ‘귀신물 다큐’라는 대상(악마)을 획득(폐지)하였고, 수혜자인 ‘시청자’를 악마(귀신)로부터 구원함으로써 결국 최종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귀신물 다큐’의 폐지 주체가 되는 ‘기윤실’을 중심으로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12> ‘기윤실’의 행위소 모델 분석틀

당시 심각한 시청률경쟁체제에 있었던 ‘방송사’는 ‘귀신물 다큐’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시청률 확보를 모색하였고, 이러한 발신자의 행위는 이를 수신한 시청자들의 의식 또는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윤실’의 윤리관을 자극하였다.

이에 ‘기윤실’은 국민 또는 시청자를 보호한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고자 주체적인 행동을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위로 제도적 통제요인인 ‘방송위’를 조력자로 하여 ‘귀신물 다큐’ 실무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프로그램 성격과 제작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제작실무자들은 이러한 ‘기윤실’의 지속적인 공격과 ‘방송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반대자라

는 행위소가 되는 것이다. ‘귀신물 다큐’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기윤실’, ‘방송위’와 의견을 같이하며, 더욱이 ‘정부’를 대신하는 막강한 ‘정치적 통제요인’인 강원용 목사의 ‘방송개혁위원회’이다.

김태환(2004)에 따르면 ‘주체’와 ‘대상’ 그리고 ‘조력자’와 ‘반대자’의 관계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지만, 발신자와 수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한다. 주체→대상의 도식은 결국 대상이 주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왕자는 신데렐라의 차지가 된다). 발신자 → 대상 → 수신자(또는 수혜자)의 도식에 따르면 대상 또한 수신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대상을 얻는 행위소가 둘이 된다는 것이다.<sup>89)</sup>

그는 주체가 대상을 찾아 나서서 결국 이를 획득하는 과정과 두 행위소, 즉 주체와 수신자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 도식에 나타난 주체와 대상 그리고 주체와 수신자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 도식에서 주체→대상의 관계는 주체인 ‘기윤실’이 적극적인 항의와 압력을 통해서 결국 대상인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는 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는 첫 번째 대상을 얻는 행위소가 된다.

발신자 → 대상 → 수신자의 관계는 대상 또한 수신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주체의 입장 또는 개입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윤실’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신자는 자신들이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인 시청자일 뿐이다.

‘기윤실’이라는 주체가 대상을 소유 또는 통제함으로써 시청자 또한 ‘귀신물 다큐’라는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신자인 ‘시청자’는 대상인 ‘귀신물 다큐의 폐지’를 얻게 되는 두 번째 행위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기윤실’이라는 주체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이다.

89)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의 수용과 해석 문화연구’ 2004 김태환 서울대 강사 2p

## V. 결론

이상으로, ‘귀신물 다큐의 폐지원인’을 각 통제요인과의 의미구조 및 ‘행위소’들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귀신물 다큐’의 폐지는 최초 ‘기윤실’의 항의로부터 발단이 되어 그 의견을 받아들인 ‘방송위’의 강한 제재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방송개혁 정책에 의해 마무리 되었다. 특히 ‘기윤실’은 시청자단체이지만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종교단체이기도 하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듯이 기독교는 기존 종교에 비해 이교도의 문화와 크게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귀신문화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기윤실’은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초기에는 방송사에 항의를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방송위’에 지속적으로 항의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시청자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한 압력을 주기도 했다. 또한, ‘귀신물 다큐’가 폐지되어야 하는 논리적인 설명으로서 방송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귀신물 다큐’의 폐지라는 배경 뒤에는 ‘기윤실’이라는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귀신물 다큐’의 폐지에 영향을 준 통제요인들과의 의미구조를 보면 특이한 점들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외부적 통제요인인 시청자 단체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미소를 제시하면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나타난 의미구조는 ‘기독교’가 과학이라는 의미소와 함의관계가 되버리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기존역사들을 통해 종교가 과학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 내부적 통제요인인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귀신물 다큐’에 ‘우호적’이

라는 의미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제요인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비우호’라는 의미소로 돌변하는 현상이 생겼다.

셋째, ‘귀신물 다큐’의 폐지가 겉으로는 외부통제요인의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의 내부적인 통제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라고 방송사에 요구했다는 기록은 없다. 정부에서 강원용 목사를 필두로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중과 3사의 편성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귀신물 다큐’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어찌 됐든 방송사 스스로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방송사 스스로가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의 폐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외부통제요인들의 적지 않은 압력이 작용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통제요인’인 시청자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와 ‘제도적 통제요인’인 방송심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 그리고 ‘정치적 통제요인’인 강원용 목사의 강한 방송개혁의지 등 이 세 가지 외부 통제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되면서 결국에는 ‘내부 통제요인’인 ‘방송사의 자율적 통제’에 영향을 주었고 자체적으로 ‘귀신물 다큐’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논지다.

‘귀신물 다큐’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비과학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역기능을 안고 있으며, 너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시대도 변하고 시청자의 수준도 변한다. 귀신이 등장한다는 프로그램 하나가 사회적으로 미신풍조와 국민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건 조금은 민감한 반응이라 여겨진다. 물론 방송이 가진 영향력으로 볼 때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인 기능으로서의 무거운 방송이 있듯,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를 추구하는 가벼운 오락성 방송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방송사의 편성과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청률이 외부적 통제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통제요인인 시청자단체 ‘기윤실’이 ‘방송위’에 항의서를 보내면서 제도적 통제요인인 ‘방송위’로 하여금 방송사에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방송사 내부통제요인인 방송사의 자율적 통제는 자구책으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옮기고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끌던 인기 있는 소재와 프로그램의 형식(다큐에서 드라마) 또한 제한을 받게 되면서 시청자 층이 줄어들고 결국 시청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물 다크’ 프로그램의 폐지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청률이 아무리 높고 인기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방송사의 외부통제요인들의 연계작용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방송을 출범한 이래로 ‘귀신물 다크’이외에 시청률이 높은 방송프로그램이 폐지됐던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찾지 못했는데, 이는 필자의 경험과 노력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귀신물 다크’라는 인기방송프로그램의 폐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사례이며, 그 나라의 종교나 윤리관이라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에 의해 폐지가 된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귀신물 다크’ 프로그램의 폐지원인은 우리나라 방송역사의 한 페이지로써 방송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기윤실 (1997),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시정조치 요청' 4. 17
- 기윤실 (1997),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재차 시정요청' 4. 29
- 기윤실 (1997),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5. 6
- 기윤실 (1997), '밝은 문화 모니터 팀 방송위원회에 공개질의서 발송' 5. 7
- 김성도 역 (1997). '의미에 관하여 Greimas, A', 인간사랑
- 김소영 (2003), '근대성과 여자 귀신'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특집호  
한국학논집, 30권, 단일호
- 김 현 (1998), '조선 유학에서의 귀신 개념', 《한국유학의 자연인식》, 예문서원
- 김태환 (2004),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의 수용과 해석 문화연구'
- 김현중 (2003), '시청점유율이 TV 프로그램의 폐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올 김용옥 (2007), '기독교성서의 이해' 통나무
- 목창균 (1990), '무속신앙의 영향과 한국교회의 마귀론', 목회와 신학 10월호
- 박용조 (2003), '중국사상에서의 귀신에 대한 이해'
- 박기순·백선기 (1994),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언론학보 31.
- 반승원 (1999), '경제위기 상황에서 TV 방송 3사의 편성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송심의 월보 (1997),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심의 월보 (1998), 방송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정기 회의록 (1997), 제 235차 10. 8
- 방송위원회 임시 회의록 (1997), 제 236차 10. 22
- 방송제작실무-다큐멘터리 (2005) 김동만 외 공저 제주한라대
- 백문임 (2002), '역사물과 공포영화 민족문학사연구' 제 20권, 민족문학사학회
- 일레인 페이지스 (1995), '사탄의 탄생' (Elaine Pagels) 권영주 옮김/ 루비박스
- 신정철 (2008),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적 4각형(semiotic square)'  
광고커뮤니케이션론 5월21일

- 서정수, 차배근, 최창섭 (1983),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 안병국 (1995),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 김수청 (2003), '유교의 생사와 귀신문제' 석당논총 (제 33집)
- 이이화 (1999), '역사풍속기행'역사비평사
- 이자실 (2005),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서울서적
- 이찬수 역 (1998), '지옥의 역사1'
- 최은석 역 (1999), '악마의 문화사', 황금가지.
- 조성호 (2001), '텔레비전방송사의 프로그램 변경과 시청률' 4호 한국방송학보
- 주성희 (1996), '지상과 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  
신문방송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칼 세이건 (2001),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상현 역, 김영사)
- 한겨레 21 (2001), '공포의 사회학' 커버스토리 8월14일 제372호
- 한겨레 21 (2001), '귀신과 악마사이' 8. 22
- 노성환 역 (1995), '조선의 귀신', 민음사
- Greimas, A.-j.(1983),*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  
(D. McDowell, R. Schleifer and A. Velie trans.)  
Lincoln : University Nebraska Press.

## **【ABSTRACT】**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reasons

behind the abolition of 'Ghost Docu' Programs in Korea

: Mainly with ' Into the Story by MBC ', 'Saturday Mystery Theatre by 'SBS

Young-Gyu Ko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what outside control factors were involved and what influences and the roles they played were present when some popular programs with high ratings were abolished, in the past.

'Ghost Docu' programs started being made in 1997 and were considered a new documentary genre. 'Into the Story' by MBC and 'Saturday Mystery Theatre' of SBS were especially well received by the viewers.

Such new 'Ghost Docu' programs, however, were locally controlled and finally disappeared in early February, 1999. They have never come back.

The reason for their disappearance was not just a matter of TV programming, a kind of social uniqueness largely embedded in our culture.

I collected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ling factors that could bring some TV programs to an end and then found each semantic feature about the correlation and role in the process of abolishment. Finally I used the Greimas' models actantiels to find the correlation among the controlling factors.

There are four theoretical basis for this study; the first <Christianity and ghosts> part deals with the origin of ghosts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their formation of the Bible.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Church had a strong resistance against those ghost programs. It was Christian groups

that took the lead in bringing the programs to the end. The abolishment was largely considered unreasonable and many people think that affected the sentiment of the public. When we take a closer look at the history of the Church, however, there has been a deeply-rooted reason, the 'Theory of Devil.' In fact, in the history of the West, the phrases that justified all the brutal actions when the Church conquered pagans always had something to do with devils and the beginning of every 'Theory of Devil' was no other than the Old Testament.

In the second part, <Western Devils and Eastern Ghosts>, because of the 'Theory of Devil' found in the Bible, the eastern ghosts are considered the same with the western devils.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shown in this part.

In the third, < The Abolition of TV programs and the Controlling Factors>,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made 'Ghost Docu' disappear. I tried to analys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have been revealed to this point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main method I have used for this study was <Greimas' Semiotic>. Greimas' quadrangle and modele actantiel helped me reac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re were two study topics; first, the structural semantic relation between external controlling factors and the 'Ghost Docu' was evaluated with the method of Greimas' quadrangle and to study the second topic the modele actantiel was applied based on the study result of the topic 1.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as a uniquenes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xternal controlling factors and the 'Ghost Docu.' When a broadcasting company, an internal factor, meets a political controlling factor, its favorable aspect turns dramatically unfavorable. It appeared that the programs were put to an end by the companies' own factors but actually they were under continuous pressure and influence from external factors.

Finally, when I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lling factors as a

whole and 'Ghost Docu' as a result of the modele actantiel study, the main player to make the programs disappear was the 'Christian Ethics Initiative', a religious group. Behind all these was the Christian culture. It had come to Korea when we had accepted Western culture and has since been deeply rooted as a social and cultural paradigm in this country.





부 록

○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총 110 회 방영 중 방송법 위반 횟수 및 위반 내용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아 보기 (쪽)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97.1.10 23:15~24:00)	제91- 1차 (1.22.)	경고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 음식을 바쳤더니 귀신이 떨어졌다는 방송을 함	27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3.21 23:10~24:00)	제97-20차 (3.31.)	경고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아들, 며느리의 불화로 약먹고 자살한 시어머니가 목없는 귀신이 되어 밤마다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 *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60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4. 18. 23:20~24:10)	제97-28차 (4.28.)	경고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밤마다 처녀 귀신이 나타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방송함.	45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3. 28. 23:10~24:00)	226차 방송위원회 (5.21.)	경고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귀신이 자주 나타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등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실제 상황인 것으로 묘사하여 방송함.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 저해 *시청자에게 충격, 불안감 조성	44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4. 11. 23:10~24:00)	226차 방송위원회 (5.21.)	경고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귀신이 자주 나타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등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실제 상황인 것으로 묘사하여 방송함.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 저해 *시청자에게 충격, 불안감 조성	45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아 보기 (쪽)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5. 2. 23:10~24:00)	226차 방송위원회 (5.21.)	법정 제재 (해당 방송 순서의 담 당자 및 책 임자 징계 )	개인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귀신이 자주 나타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 등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실제 상황인 것으로 묘사하여 방송함. *건강한 생활기풍 조성 저해 *시청자에게 충격, 불안감 조성	29
MBC-TV	다큐멘터리-이야기속으로 (9.19 21:50~22:40)	236차 방송위원회 (10.22.)	법정 제재 (시청자에 대한 사과)	죽은 사람이 저승사자로 나타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을 유혹하여 죽게 한다는 내용 및 책임자가 지금도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는 내용, 백중날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한다고 믿는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함. *개인의 초상권 침해 *충격-불안감을 주는 내용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54

○ 토요미스터리극장 총 70 회 방영 중 방송법 위반 횟수 및 위반내용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아 보기 (쪽)
SBS-TV	1997 토요미스터리 (6.21. 21:50~22:50)	229차 방송위원회 (7. 7.)	법정 제재 (해당방송순 서의 책임 자 및 연출 자에 대한 징계)	공포심을 유발하는 무서운 화 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개 인의 체험임을 내세워 귀신 이야기를 주로 다룸. *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내용	36
SBS-TV	토요미스터리 (6.28. 21:50~10:50)	229차 방송위원회 (7. 7.)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무서운 화 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확 인되지 않은 귀신 이야기를 개인의 체험임을 내세워 검증 없이 다룸. *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32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7.19. 21:50~22:50)	231차 방송위원회 (8. 13.)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개인의 체험을 전제로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개를 어머니의 환생이라고 하는 등의 미신적 인 이야기를 방송함. * 사회윤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31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7.26. 21:50~22:50)	231차 방송위원회 (8. 13.)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개인의 체험을 전제로 소녀의 원혼을 통해 돌풍이 일어난 것으로 유도하고 꿈속의 귀신 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내 용을 사실적으로 다룸. * 사회윤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32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아 보기 (쪽)
SBS-TV	토요미스테리 극장 (8.30 21:50~22:50)	235차 방송위원회 (10. 8.)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꿈에 어머니의 팔이 꺾인 것 을 보고 일어나 보니 실제로 어머니가 팔이 꺾인 채로 숨 져 있고, 어렵게 낳은 아들에 게 꺾한번 물리지 못하고 죽 은 어머니의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분유를 사서 먹였다는 등의 내용을 극화함.	43
SBS-TV	토요미스테리 극장 (9. 6. 21:50~22:50)	235차 방송위원회 (10. 8.)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시아버지 시신의 질배계 지푸 라기로 이를 쭈시던 며느리에 게 시아버지 혼령이 씌어 굶 을 한 후 나왔다거나, 몽유병 이 있던 청년이 산장에서 처 녀 시체를 반복하여 보고 그 충격으로 숨진 후 들른 다른 젊은이에게 또 여자시체가 보 였다는 등의 비과학적인 이야 기를 개인의 실제 체험임을 내세워 극화함.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장	46
SBS-TV	토요미스테리 극장 (9.20. 21:50~10:50)	235차 방송위원회 (10. 8.)	법정 제재 (시 청 자 에 대한 사과)	죽인 뱀의 뱀여인이 아이들을 죽게하고 죽은 여인의 혼령이 씌어 묘를 파헤치며, 아버지의 시신을 선산에 묻으려다 일본 순사에게 들켜 고문을 당하던 중 자결한 처녀의 원혼이 일 본순사와 앞잡이를 죽게 했다 는 등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실제 체험임을 내세워 극화함.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도 조 장	49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아 보기 (쪽)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9.27. 21:50~22:50)	235차 방송위원회 (10. 8.)	법정 제재 (시청자에 대 한 사과)	어머니의 낙태로 죽은 쌍둥 이가 한을 품어 쌍둥이를 임신한 딸이 죽게 된다거나 불에 타서 죽은 딸을 그리 워 한 나머지 자살한 어머 니의 귀신이 그 산속을 지 나는 여자들의 얼굴가죽을 벗기려고 한다는 내용과 집 배원을 잘 따르는 개가 전 생에 그 집배원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였다는 역술가 의 말을 재연하여 방송함. *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 충격 불안감을 주는 내용	52
SBS-TV	추석특집 토요미스터리 극장 (9. 15. 15:20~16:20)	235차 방송위원회 (10. 8.)	법정 제재 (해당 방송순 서의 책임자 및 연출자에 대한 연출정 지)	낮 시간대에 무서운 여러 가지 귀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이미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고 비과 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 며, 시청자에게 충격과 불안 감을 주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은 바 있는 방송내용을 다시 방송함. * 방송시간대 부적합 *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 도 조장	39
SBS-TV	1998 토요미스터리 극 장 (8.1 21:50~22.50)	제98-63차 (8. 17)	경고	역승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유명인들의 사주를 가지고 그들의 직업 등을 알아 맞 추는 내용들을 장시간 방송 함. * 미신 비과학적인 생활태 도 조장 * 간접광고	36

채널명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의결일	제재 종류	위반사유	찾 아 보 기 (쪽)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10.24. 21:50~22:50)	제98-84차 (11. 2)	경고	도끼로 사람을 살해해 인육을 먹는 장면을 방송하고, 어린 소녀가 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가 피가 나게 만들고, 먹이를 주던 토끼장에 불을 질러 토끼를 태워죽이고, 동생을 유괴해 집앞 쓰레기통에 감금한다는 내용과 아버지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불태워 살해하는 내용을 방송함.	50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11.14. 21:50~22:50)	제98-90차 (11. 23)	경고	교통사고로 오빠를 죽인 차량이 자신의 차를 따라오던 차와 동일하며, 실제운전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제보받아 재구성 하면서 실제사건인 것처럼 방송하며, 그 차량의 원주인이 유학중인 오빠가 죽인 사람이었으며 그 원혼이 차량을 운전해 복수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방송함. * 사회윤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66
SBS-TV	토요미스터리 극장 (12.12. 21:50~10:50)	제98-98차 (12. 21.)	경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궁합을 보다 삼재가 끼었으니 결혼을 4년 후로 미루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결혼한 남녀가 이후 좋지 않은 일들에 시달리다 결국 아들마저 죽는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점을 봤던 할머니의 예언이 맞아들어간다는 내용을 방송함. * 사회윤리 및 건전한 생활기풍 저해	42